2017년 원주환경운동연합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

○ 일 시 : 2017년 1월 19일(목) 18:30

○ 장 소 :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원주환경운동연합

2017년 원주환경운동연합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

○ 일 시 : 2017년 1월 19일(목) 18:30

○ 장 소 :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원주환경운동연합

주 소) 2634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돌터2길 11 2층

전 화) 033-732-1102 팩 스) 033-744-5642

홈페이지) http://wonjukfem.or.kr 이메일) wonju@kfem.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wonjukfem

2017년 원주환경운동연합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 목차

1. 총회순서 3
2. 원주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4
3. 제23차 정기총회 회의록 5
4. 2016년 활동일지 7
5. 2016년 활동보고 20
6. 2016년 재정결산 보고 41
7. 감사보고 46
8. 정관개정(안) 48
9. 2017~2018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추천(안) 49
10. 2017년 활동계획(안) 50
11. 2017년 예산계획(안) 52
12.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53
    - 회원 명단 69
    - 비품내역 70
    - 정관 73
    - 운영세칙 79

총 회 순 서

1. 개　회

2. 인사말

3. 성원보고

4. 안건토의

   ○ 23차 총회 회의록 보고 및 추인

   ○ 2016년 사업 · 결산 보고 및 승인

   ○ 감사보고

   ○ 정관개정

   ○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선출

   ○ 2017년 사업 및 예산 승인

   ○ 기타 안건

5. 광고

6. 폐회선언

원주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우리는 우리의 생존조건을 떠나서 잠시도 살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활동들은 바로 이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환경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기본 바탕이다. 우리의 환경은 이 땅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재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수백만 년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삶의 원천이다.

이러한 환경이 불과 수십 년 사이에 파괴되고 오염되었다. 깨끗했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이게 되었고 맑았던 강은 썩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아름다웠던 산과 들은 쓰레기로 온통 뒤덮이게 되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던 수많은 종의 동·식물들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파괴, 오염된 환경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생활과 생존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환경을 이처럼 파괴하고 더럽게 만든 것은 그 동안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를 무분별하게 진행시켜 온 잘못된 정책들 때문이다. 물질적 이익만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윤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종전의 기업 활동은 자원과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엄청난 공해물질을 내뿜었으며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성장정책을 최우선으로 한 역대정부는 개발만을 강조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단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시민 개개인들 역시 무절제한 소비생활로 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심각하게 파괴되고 오염되어 가는 환경문제는 잘못된 이념과 철학의 기초 위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점을 일찍이 우리는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원주에서는 함께 살자는 생명 사상을 주창하였고 한살림운동을 잉태시켰다. 이 자랑스러운 운동의 기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좀 더 조직화하고 생활화된 지역주민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원주환경운동연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만천하에 공표하여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가 조화로운 환경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지구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993. 9. 21

원주환경운동연합

2016년 제23차 원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회의록

□ 참석인원 : 230명

○ 성원 : 417명

○ 참석 : 55명

○ 위임 : 175명

○ 총회 참석자 현황

구분	참석자 명단	소계
참석	강신범, 강철식, 계주홍, 김경석, 김경준, 김명수, 김문섭, 김순희, 김영규, 김영래, 김영하, 김재춘, 김진철, 김현자, 김현주, 박광삼, 박성현, 박신호, 박양욱, 박우순, 박은수, 박재덕, 박종만, 박종화, 박철우, 박한숙, 서기종, 서연남, 안영숙, 안태만, 엄태원, 용정순, 원규희, 이순옥, 이영화, 이운식, 이창빈, 이창열, 이향수, 임길상, 장소정, 전보경, 전숙희, 정인환, 정진만, 정창기, 조은자, 조현숙, 차경익, 채병준, 추교명, 한경호, 허남일, 홍범호, 황인수	55
위임	강미희, 강영구, 강희진, 계규민, 계서연, 고미영, 고유건, 고유민, 고준희, 공제욱, 권인석, 권태원, 권혁미, 김계영, 김기호, 김길선, 김나연, 김동열, 김동력, 김미자, 김범중, 김법성, 김선희, 김수경, 김영길, 김영무, 김영성, 김영수, 김영재, 김영주, 김영태, 김왈선, 김용우, 김응규, 김익록, 김장섭, 김재구, 김재용, 김종남, 김주원, 김준연, 김진열, 김진용, 김학배, 김해경, 김해용, 김흥수, 나복용, 남수자, 노병철, 류관희, 문규덕, 문응기, 문정선, 민경성, 박기군, 박병섭, 박병수, 박성룡, 박순덕, 박애종, 박영금, 박정자, 박종규, 박종현, 박지우, 박형욱, 배병호, 배준형, 백귀헌, 서용찬, 석유진, 석형근, 성락철, 손병용, 신기형, 신동숙, 신동환, 신미선, 신병식, 신선옥, 신정자, 안종남, 안태성, 안현주, 엄광호, 엄안섭, 엄영철, 오영환, 오인호, 오제순, 왕영희, 용한수, 원노연, 원성희, 원인묵, 유경진, 유광수, 유기형, 유병헌, 유진만, 유태종, 윤은정, 이광순, 이광희, 이기선, 이남수, 이동란, 이무춘, 이미숙, 이병운, 이선화, 이순구, 이시근, 이연택, 이영수, 이인숙, 이재홍, 이재희, 이정남, 이정북, 이 준, 이진우, 이창호, 이철수, 이태희, 이한진, 이현주, 이현직, 이형표, 이희정, 임동이, 임영수, 임종태, 임주열, 임창숙, 장금옥, 장기향, 장김현주, 장동영, 장봉근, 장춘학, 전영길, 전정선, 전찬열, 정규원, 정덕영, 정동우, 정명자, 정연복, 조영수, 조윤주, 주용준, 지은희, 진광장, 진혜영, 차영배, 최경희, 최영희, 최 일, 최준길, 최혁진, 최현택, 최혜옥, 최흥식, 하영진, 한광덕, 한석구, 함점순, 현 각, 홍종민, 황범순, 황송자, 황영호, 황정욱	175
합계		230

□ 총회 회의결과

① 성원보고

김경준 네트워크활동국장이 총회 참석자 명단을 참고하여 총회 참석자 현황과 같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② 개회(18:55)

성원이 충족되어 엄태원 공동대표(총회 의장)가 제23차 정기총회를 개회하다. 엄태원 공동대표가 22차 총회 회의록 보고 및 추인, 201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승인, 감사보고, 2016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다.

③ 제22차 총회 회의록 보고 및 추인(18:58)

총회자료집 서면(자료집 5쪽~7쪽)을 참조하고 엄태원공동대표가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 추인하다.

④ 201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승인(18:59)

김경준 네트워크활동국장이 자료집(8쪽~44쪽)과 자료화면을 통해 2015년 활동, 재정보고, 자산 및 부채내역을 보고하다. 엄태원 공동대표가 질문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묻다. 참석한 회원들이 질문이 없음을 답하고, 엄태원 공동대표가 참석한 회원들에게 동의와 재청을 받아 2015년 사업·결산 보고를 원안 승인하다.

⑤ 감사보고(19:19)

엄태원 공동대표가 회계감사와 사업감사의 불참을 총회 성원에게 보고하고, 자료집(44쪽~45쪽)으로 보고받을 것을 제안하고, 총회 성원이 동의하여 김경준 네트워크활동국장이 감사보고서를 낭독하고 회원들이 박수로 동의를 표하여 감사보고를 승인하다.

⑥ 2016년 사업 및 예산(안) 승인(19:22)

김경준 네트워크활동국장이 자료(46쪽~28쪽)집과 자료화면을 통해 2016년 사업 및 예산(안)을 보고하다. 엄태원공동대표가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추후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원주환경운동연합에 제안하기를 부탁한다. 엄태원공동대표가 참석한 회원들에게 동의와 재청을 받아 2015년 사업 및 예산(안)을 원안 승인하다.

⑦ 폐회(19:37)

엄태원 공동대표가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이나 의견이 있음을 묻다. 참석한 회원들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받아 제23차 정기총회를 폐회하다.

활 동 일 지

1월

01.01	SRF 시민대책위 회의	11:00 원주환경연합
01.0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집행위원회	15: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17: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1.0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1인 시위	08:20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1월 운영위원회	18:30 원주환경연합
01.11	한강유역네트워크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	15:00 서울
	함께사는길 발송	38부
	총회공지문 및 기부금확인서 발송	417부
01.12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중단 요구 기자회견	11:00 원주지방환경청 앞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19:30 원주녹색연합 사무실
01.1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1인 시위	08:20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회원모임] 숲사람들 공부모임	18:30 원주환경연합
01.14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14: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1.15	한전경인건설처 워크숍 강의	11:00 가평
	중앙환경운동연합 비전수립 워크숍	15:00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01.16	원주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12:00 노인생협 식당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집행위원회	15:00 원주지방환경청 앞
01.18	제23차 정기총회 준비 소위원회	14:00 원주환경연합
	원주의료원 인사위원회	16:00 원주의료원
	설악산케이블카 반대활동 정책TF 회의	20: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1.19	제23차 정기총회 회계 감사	09:00 원주환경연합 사무실
	제23차 정기총회 사업 감사	13:30 원주환경연합 사무실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요구 원주환경청장 면담	14:00
01.20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긴급 기자회견	11:00 원주지방환경청
01.21	제23차 정기총회	18:30 아모르웨딩홀 비취홀
01.25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1.25~26)	14:00 보성환경연합
	설악산케이블카, 원주지방환경청 기습 점거농성	08:30 15명
01.26	여산골프장 성과 보고대회	11:00 원주시의회 모임방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15: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01.27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1인 시위	08:20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설악산케이블카, 박그림 등 3인 석방요구 기자회견	14:0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01.28	설악산 집중문화제 준비회의	11: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CBS원주 라디오 인터뷰	17:30 방송국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월례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1.29	설악산 집중문화제 준비회의	11: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1.30	환경운동연합 초록누리꾼 워크숍(1.30~31)	13:00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설악산케이블카, 원주환경청 비박농성 100일 집중문화제	15:00 원주지방환경청 앞

2월

02.02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회의	19: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2.0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전국행동 공동회의	13: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2.11	원주시 부시장 주재, 캠프롱 조기반환 사전간담회	15:00 원주시청 부시장실
02.12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2.15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대표자 회의	15:00 원주환경연합
	강원협의회,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비박농성장 지지방문	17:30 원주지방환경청
02.16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회	15:00 서울 회화나무카페
02.17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1인 시위	08:20 원주지방환경청 앞
	2월 운영위원회	18:30 원주환경연합
02.18	설악산케이블카 각 정당 입장질의 기자회견	11:00 서울 국회앞
02.20	원주시민사회단체 척사대회	10:30 원주자활센터
	독일방송, 가리왕산 촬영 지원	13:30 가리왕산
02.21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척사대회 및 2월 월례회의	10:00 우산동 야구장
02.22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회	13:30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정기총회	16:00 가톨릭센터 식당
02.24	한전 경인건설처 녹색환경자문위원회	16:00 인터불고 호텔
02.26	태백국유림관리사무소 숲해설 채용 심사	10:00 태백국유림관리소
02.27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회의	12:00 서울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14:00 서울역사박물관

3월

03.01	원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모임	12:00 영화은마차
03.02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도 낙천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11:00 강원도청 브리핑룸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기총회	14:00 춘천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14:30 환경운동연합
03.03	세계두루미의날 기념 토론회 -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14:00 국회도서관
03.04	청정건강도시 원주지키기 시민모임 회의	11:30 우리집을 못찾겠네요
03.07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0:00 환경감시단 사무실
03.10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14:00 원주시청 7층 회의실
03.11	태백국유림관리사무소 숲해설 채용 심사	10:00 태백국유림관리소
03.12	춘천환경연합 임원진과 활성화방안 수립 간담회	12:00 춘천환경연합
03.14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장단 회의	15:00 대전
	3월 운영위원회	18:30 원주환경연합
03.15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원주시민단체 대표자회의	14: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3.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회의	11:00 원주지방환경청 앞 카페
	[회원모임] 숲사람들 공부모임	18:30 원주환경연합
	함께사는길 발송	38부
03.17	더민주 비례후보 심기준 도당위원장 낙천요구 기자회견	11:00 더민주 당사앞
	[회원모임] 생명미술시민작가회 정기모임	11:00 중앙동 화실
03.18	강원도교육청 환경단체 보조사업 설명회	14:00 춘천
03.19	물의날 기념 원주천 캠페인	10:30 원주천(새벽시장→치악교)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월례회의	10:30 원주천
03.21	원주청년모임(가칭) 2차 회의	14:00 무위당 사무실
03.24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지원	13:00 춘천환경연합
03.28	미니바이오블리츠 학교숲 지도 만들기 답사	14:30 봉대초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후원행사 준비모임	16:00 원주여성민우회
03.29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4층 회의실
	[환경스토리텔러 양성교육] 1강(환경기초, 김경준)	18:30 원주환경연합
03.30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지원	13:00 춘천환경연합
03.31	설악산케이블카, 원주모임 후원행사	11:00 원주웨딩홀

4월

04.01	원주지시민사회단체 활동가모임	19:00 뜰안
04.04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지원	18:30 춘천환경연합
04.05	[강원도교육청] 교동초등학교 답사	11:00 교동초등학교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활동가회의	14:30 춘천환경연합
04.06	교육팀 회의(봉대초등학교 미니바이오블리츠-학교숲 지도)	13:00 원주환경연합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 전체회의	14:00 강원도청
	4월 운영위원회	18:30 원주환경연합
04.07	[지속가능] '지구야 사랑해' 지구를 지키는 빙고 답사	10: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원주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11: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4.08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교실-교동초등학교 1차	10:20 교동초등학교
04.09	오크밸리 숲해설	15:00 오크밸리
04.12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원주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19: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4.15	강원도, 산악관광자문위원회 회의	14:00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교실-만대초등학교 답사	14:00 만대초등학교
	2016 어린이날 큰잔치 사업설명회	16:00 청소년문화의집
04.16	오크밸리 숲해설	15:00 오크밸리
04.17	용인 시멘트연구소 반대 주민싸움 승리 잔치 참석	16:00 용인, 돌아온 부아산
04.18	강원도교육청 주관, 시민사회단체 정책토론 간담회	14:00 강원도교육청
	원주청년 단톡방 회의	14: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도시계획위원회 현장 답사(임목축적 확인)	16:30 우산동 현장
04.19	강원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이행점검	10:30 춘천, 횡성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지속가능] 봉대초등학교 미니바이오블리츠 답사	15:00 봉대초등학교
	[환경스토리텔러 양성교육] 2강(하천과 환경, 최준길)	19:00 원주환경연합
04.20	[지속가능] 가뭄대비를 위한 물 수요관리 방안 토론회	14: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회원모임] 숲사람들 공부모임	18:30 원주환경연합
04.21	[지속가능] 미니바이오블리츠-학교숲지도 만들기 1차	09:00 봉대초등학교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 지원	12:00 춘천환경연합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월례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4.22	[지속가능] 미니바이오블리츠-학교숲지도 만들기 2차	09:00 봉대초등학교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12:30 강릉 풀씨터

04.23	[지속가능] 기후변화 주간, '지구야, 사랑해'	12: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지속가능] 초록이야기	13: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오크밸리 숲해설	15:00 오크밸리
04.25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교실-만대초등학교 1차	10:00 만대초등학교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대표자 회의	15:00 춘천환경연합
04.26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주관, 환경컨설턴트 교육	14: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회원모임] 회원의날	18:30 소소
04.27	강원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이행점검	10:00 강릉, 삼척
04.28	[회원모임] 생명미술시민작가회 정기모임	11:00 화실
04.29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교실-교동초등학교 2차	12:00 백운산휴양림
	북부지방산림청, 벌채조림평가위원회	14:00 북부지방산림청
04.30	오크밸리 숲해설	15:00 오크밸리

5월

05.02	상지대 비대위, 김문기 규탄대회 참석	18:30
05.03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 지원	17:00 춘천환경연합
	[환경스토리텔러 양성교육] 3강(안전한 먹거리-이병시)	19:00 원주환경연합 교육실
05.04	에너지기후위원회, 착한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전환 워크숍	13:00 서울
05.05	2016 어린이날 큰잔치-모여라! 어린이 초록수호단	09:00 치악예술관 옆
	오크밸리 숲해설	15:00 오크밸리
05.07	[청소년] 원주환경연합 청소년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14:00 청소년문화의집
	오크밸리 숲해설	15:00 오크밸리
05.09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교실-교동초등학교 3차	10:20 교동초등학교
	강원발전연구원, 지장천 환경피해액 산정 용역 간담회	15:00 원주환경연합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지원	10:00 춘천환경연합
05.10	강원시민사회연구원, 환경컨설턴트 교육	13:00 매립장
05.12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연합 주관 옥시 불매 기자회견	10:30 춘천 롯데마트 앞
05.13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모임	19:00 천매막국수
05.16	캠프롱 미군기지, 원주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0:00, 원주여성민우회
05.17	[환경스토리텔러 양성교육] 4강(기후변화와 환경-제현수)	19:00 원주환경연합
05.18	5월 운영위원회	18:30 원주환경연합

05.19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집행위원회	10:30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 지원	13:00 춘천환경연합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05.20	강원생명평회회의 생명민회(5.20~21)	16:00 강릉 현덕사
05.21	[원주지속가능] 초록이야기	13: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정기순찰	10:00 신림
	오크밸리 숲해설	16:00 오크밸리
05.23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만대초등학교 2차	12:30 백운산자연휴양림
05.24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14:00 원주시청
05.26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 원주 근대문화 유산 답사	10:00 원주 시내
	캠프롱 미군기지, 확대간담회	14:00 원주시청 대회의실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5월 월례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5.27	환경올림픽을 위한 행동과 강원도자원순환사회 미래비전회의	14:30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5.28	오크밸리 숲해설	16:00 오크밸리
05.31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11:00 원주시청 브리핑룸
	원주환경연합 공동대표단 회의	12:00 성우정
	[환경스토리텔러 양성교육] 5강(영상매체와 환경-김은지)	19:00 원주환경연합

6월

06.01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산자부-주민대책위 간담회	11:00 한라대학교
	강원CBS 라디오 인터뷰(방역살충제 문제)	17:30
	함께사는길, 소식지 발송	38부 405부
06.02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활성화 업무지원	13:00 춘천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활동방안 모색 간담회	17:00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06.04	오크밸리 숲해설	16:00 오크밸리
06.07	강릉KBS 라디오 인터뷰(방역살충제 문제)	08:50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교동초등학교 4차	12:50 원주 근대문화유산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11: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타
06.08	6월 운영위원회	18:30 원주환경연합 사무실
06.09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집행위원회	14:00 원주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16:00 원주환경연합
06.10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6.11	[청소년] 원주환경연합 청소년 동아리 2차 오리엔테이션	11:00 원주환경연합 교육실
	[환경스토리텔러양성교육] 6강, 7강(해양문제-여길욱)	13:00 원주환경연합 교육실
06.13	원주KBS인터뷰(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 TMS측정 관련)	10:30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만대초등학교 3차 교육	10:50 만대초등학교
06.14	가습기 살균제 강원도 피해자 현황 2차 기자회견	11:00 강원도청 브리핑룸
	[환경스토리텔러양성교육] 8강(강릉 도암댐-심헌섭)	19:00 원주환경연합
06.15	[회원모임] 숲사람들 공부모임	18:30 원주환경연합
06.16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 환경공개검증위원회 회의	10:30 시청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시청
	설악산케이블카 원주모임	19: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6.17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중간컨설팅	13:00 원주환경연합 사무실
06.18	[지속가능] 초록이야기	10: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오크밸리 숲해설	16:00 오크밸리
	[회원모임] 숲사람들 정기모임	17:30 춘천닭갈비
06.20	[지속가능] 그린리더 양성교육 폐기물 교육	14: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06.21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대표자 회의	10:3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06.23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문막 학부모들 방문	14:00 원주환경연합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월례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6.25	바이오블리츠 코리아(양구) 체험 부스 운영(6.25~26)	11:00 양구 군청 옆
	오크밸리 숲해설	16:00 오크밸리
06.27	강원대학교 하계 인턴 1차 시작	6.27~7.22, 건축공학과 이슬기
06.28	[환경스토리텔러양성교육] 10강(환경교육사례-조현숙), 수료식	19:00 원주환경연합
06.30	[회원모임] 생명미술시민작가회 정기모임	12:30 화실

7월

07.01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2:00 환경감시단 사무실
	원주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계모임	19:00 정원감자탕
07.05	문막주민대책위,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10:30 시청 브리핑룸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민 집회	14:00 양양군청 앞
07.07	한전 경인건설처 녹색자문위원회	13:00 속초
07.09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야유회 및 월례회의	11:00 오크캠핑장
07.11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만대초등학교 4차	10:50 원주 역사문화

07.12	환경올림픽을 위한 강원도자원순환 미래비전 회의	12: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07.13	7월 운영위원회	18:30 원주환경연합
07.14	강원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1차 회의	10:00 강원도교육청
	설악산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양양군청 참여촉구 간담회	16:00 양양군청
07.15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지원	14:00 춘천환경연합
07.16	원주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모임	09: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지속가능] 초록이야기	09: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2:00 환경감시단 사무실
07.18	춘천KBS라디오 인터뷰(강원도 미세먼지)	08:45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만대초등학교 5차	10:50 만대초등학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회의	16:00 강원도청 앞
07.19	독일 ARD라디오 방송 인터뷰(가리왕산)	10:30 원주환경연합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07.21	[회원모임] 생명미술 시민작가회 정기모임	12:00 화실
	함께사는길 및 소식지 발송	39부, 408부
07.22	500kV HVDV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환경연합 회의	10:00 원주환경연합 사무실
	춘천생명의숲 환경교육(기후변화와 환경)	13:30 춘천 마더센터
07.25	설악산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간담회	14:00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대학교 하계인턴	7.25~8.19, 물리학과 강병주
07.26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기자회견	11:00 광화문사거리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1:00 원주시청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14:00 원주시청
	[회원모임] 영화상영회-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8:30 원주환경연합 교육실
	원주시 생활자원과와 폐기물문제 간담회	16:00 원주시청
07.27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집행위원회	11:00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국민행동 합동 회의	16:00 서울 농성장
07.28	강원도청, 산악관광용역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참석	10:00 강원발전연구원
	청정강원21주관, 자원순환 간담회	13:3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8월

08.01	원주시 악취 성명서 배포	
08.0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집행위원회	11:00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원주MBC 인터뷰 (악취)	16:00
08.04	KBS원주 라디오 인터뷰 (악취)	08:30
	설악산케이블카, 양양군 집회	14:00 양양군청 앞
08.05	원주MBC 라디오 인터뷰 (악취)	18:30
08.08	상지대학교 교육부 특별감사 관련 기자회견 참석	11:00 상지대학교
08.09	원주KBS 인터뷰 (악취)	17:10
08.11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원주시 환경복지국장과 악취 협의	11:00
08.12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지원	
08.13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수중생태모니터링	09:00 원주천 일대
	원주환경연합 청소년 동아리 수중생태모니터링	09:00 원주천 일대
08.14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정기순찰	10:00 금대리 방면
08.16	강원협의회, 춘천환경연합 활성화 업무지원	18:30 춘천환경연합
08.17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 회의	16:00 환경연합 사무실
08.18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장단회의	15:00 대전NGO센터
08.19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집행위원회	14:00 홍천군농민회
08.22	춘천생명의숲 기후변화 교육	16:00 대명리조트
08.23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8.23~24)	13:00 강릉소금강에코센터
08.25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1차회의	14:00 원주지방환경청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월례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8.26	원주의료원 인사위원회 참석	15:00 원주의료원
08.27	[지속가능] 초록이야기	09:00 치악산 구룡사
	산악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강원발전연구원 담당자와 협의	16:00 강원발전연구원
08.28	설악산케이블카, 전국 동시 국립공원 캠페인	15:00 치악산국립공원
08.30	강원발전연구원 주관, 산악관광종합개발계획 워크숍	14:00 KT&G상상마당
	[회원모임] 영화상영회-줄리&줄리아	18:30 원주환경연합 교육실

9월

09.01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집중문화제	13:00 낙산해수욕장, 양양군청
09.02	전국환경활동가 대회	17:00 속초 농협보험수련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계모임	19:00 노다지
09.05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사전회의	16:30 홍대 입구
09.06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만대초등학교 6차	13:20 치악체육공원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14:00 원주시청
	강원지속가능발전대회-자원순환미래비전 토론회	14: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09.08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교동초등학교 5차	12:50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2차 회의	14:00 환경관리공단 중부사무실
09.09	[회원모임] 생명미술 시민작가회 정기모임	12:00 화실
	원주천댐 자문협의회 회의	16:30 원주시청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9.12	가습기살균제, 강원도 피해현황 3차보고서 언론사 배포	
09.19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산림조사 현장 방문	10:00 간현 현장
09.21	강원도 에너지전환 토론회 준비 회의	19:00 횡성
09.22	북부지방산림청 주관, 임도평가 자문위원회	09:00 홍천 4개소
	남원주역세권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 관련 회의	10:30 원주환경연합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월례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09.23	북부지방산림청,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	09:00 홍천 4개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집행위원회	19:00 강릉
	함께사는길 발송	39부
09.24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수중생태모니터링	09:00 원주천 일대
	원주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수중생태모니터링	09:00 원주천 일대
	[지속가능] 초록이야기	09:00 원주천 일대
09.26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간담회	16:00 서울
09.27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현지 답사	09:30 설악산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회원모임] 영화상영회-단테스 피크	19:00 원주환경연합
	[회원모임] 숲사람들 공부모임	19:00 원주환경연합
09.28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3차 회의	09:30 오색그린야드호텔
09.29	북부지방산림청,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	09:00 인제 3개소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교동초등학교 6차	12:50 교동초등학교
09.30	북부지방산림청,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	09:00 양구

10월

10.0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생 가리왕산 탐방 안내	09:00 가리왕산
10.0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국민행동 합동회의	12:00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10.04	한강유역네트워크 토론회 (한강유역네트워크의 미래)	14:00 서울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계모임	19:00 비어엔조이
10.05	10월 운영위원회	18:30 원주환경연합 사무실
10.06	북부지방산림청 주관 임도 평가위원회	10:00 홍천, 인제 4개소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프로그램 개발회의	11: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 - 교동초등학교 7회차	12:50
10.11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4차회의	10:00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 - 만대초등학교 7회차	13::20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10.12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장단 회의	14:00 대전 NGO센터
10.13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 - 교동초등학교 8회차	12:50
	KBS라디오 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건)	17:30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10.14	설악산케이블카, 국회 앞 1박2일 농성 참가	
10.15	회원 자연여행(10.15~16, 군산 근대문화거리, 국립생태원 등)	군산, 서천지역
10.17	[강원도교육청] 방과후 숲학교 - 만대초등학교 8회차	10:50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5차 회의	14:00 서울
10.20	악취 성명서 발표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월례회의	18:30 원주환경연합 교육실
	함께사는길 및 소식지 발송	39부, 425부
10.24	KBS원주라디오 인터뷰 (악취)	17:10
10.25	[회원모임] 생명미술시민작가회 정기모임	11:00 화실
10.26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프로그램 개발회의	14: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10.27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촉구 기자회견	11:00 원주지방환경청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환경교육	14:30 장구봉
	한전 HVDC 설명회	17:00 서울 경인건설처
10.29	[지속가능] 초록이야기	09:00 강원도립화목원(춘천)

11월

11.01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계모임	19:00 미네르바 올빼미
11.02	캠프롱 미군기지, 원주 시민사회단체 회의	10:00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프로그램 개발 회의	15: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사무국장단 회의	16:00 춘천환경연합
	화훼관광단지 지정 보류 요구 성명서 발표	
11.03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16:00 부산
~04	강원 인권활동가 워크숍	14:00 강원교직원연수원
11.04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회	13:00 강릉 풀씨터
11.05	[회원모임] 청소년동아리	10:00 매립장
11.07	KBS원주 라디오 인터뷰 (악취)	08:45
	KBS시사프로그램 강냉이 인터뷰	13:00 원주환경연합
11.08	설악산케이블카, 8적 규탄 기자회견	11:00 강원도청 앞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11.10	[회원모임] 생명미술시민작가회 정기모임	12:00 화실
	한전 경인건설처 녹색자문위원회	16:00 고창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임원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11.12	[지속가능] 초록이야기	09: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타
11.15	상지대 행정학과 교육 (NGO와 환경갈등)	16:00 상지대
11.16	11월 운영위원회	18:30
	청정강원21, 환경활동가워크샵 교육	16:00 강원도자연학습원
11.17	북부지방산림청,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	화천, 인제
11.19	원주지속협, 1020ROUND TABLE 우리가 바라는 미래	13:00 강원대 이음관
11.21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16:00 원주환경연합
	설악산케이블카, 양양군수 재기수사명령 환영 기자회견	11:00 원주검찰청 앞
11.22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회의	14:00 가리왕산
11.23	KBS강릉 라디오 인터뷰(양양군수 재기수사명령)	08:50
11.24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월례회의	18:30 환경감시단 사무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11.29	강원도청,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	08:00 삼척
11.30	원주지속협, SDGs 프로그램 개발 회의	14: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타

12월

12.01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고발 기자회견	11:00 춘천검찰청 앞
12.05	박근혜퇴진 원주비상행동 집행위원회	19:00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2.06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회	16:00 서울환경연합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12.07	원주지속협, SDGs 프로그램 개발 회의	14: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타
	[회원모임] 환경감시단 13차 정기총회	18:30 대성기사식당
	함께사는길 11, 12월호 발송	39부
12.13	12월 운영위원회 및 송년모임	18:30 콩닥콩닭
12.14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16:00 춘천
12.16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12.17	[회원모임] 숲사람들 강릉MT (12.17~18)	16:00 강릉
12.20	가습기살균제, 강원지역 피해보고서 언론 보도자료 배포	
	총회공지문 및 기부금확인서 발송	473부
12.21	같이툰(웹툰) 회의	15:00 환경연합
	강원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회의	13:00 강원도교육청
12.23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2분과) 회의	13:30 원주시청
12.26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 촉구 성명서 발표	
12.27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14:00 기후변화대응연구교육센타
12.28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부결	14:00 문화재위원회
	[지속가능] SDGs 프로그램 개발 회의	13:0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타

2016년 활동보고

2016년 주요계획 대비 성과 판단

	계획	성과
중 점 활 동	□ 설악산 및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부결
	□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활동	⇒ 주민대책위 연계활동에서 독자활동 진행 LNG변경, 문막주민여론조사, 산자부 간 담회 등을 이끌어냈으나 효과 미비
	□ 미군기지 캠프롱 시민공원 추진을 위한 활동	⇒ '선반환 후복원'을 요구하는 원주시 및 현안대책위 등의 여론에 진행 미비 ⇒ 지역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캠프롱 오염 현황 파악후 대처 결론 이끌어냄
원주 환경연합 내실화	□ 회원증대목표 : 500명 □ 월회비 목표 : 7,200,000원 □ 지역사회 환경적 영향력 확대 ◦ 온라인회원의 확대 ◦ 언론 및 회원대상 주간브리핑 ◦ 회원모임 4회 추진 □ 환경오염현장 모니터링 활동	⇒ 478명 ⇒ 7,314,000원 ⇒ 매우 미흡 ⇒ 진행
환경교육 사업의 지속추진	□ 숲체험교육사업(상지대 연계) □ 환경단체보조사업(강원도교육청) □ 방과후 환경학교(환경부) □ 시민환경강좌	⇒ 상지대가 교육사업 진행하지 않음 ⇒ 진행 ⇒ 공모 안됨 ⇒ 환경스토리텔러교육(10강) 초록이야기, 바이오블리츠교육 등
주요 환경활동	□ 국회의원선거 정책반영 요구활동 □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활동 □ 한강유역네트워크 활동 □ 폐기물 정책제안활동	⇒ 일부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미비
일상 환경활동	□ 환경기념일 캠페인 활동 □ 회원스티커 제작 및 게시 □ 설악산케이블카 국민소송단 모집	⇒ 일부 진행(물의날, 어린이날) ⇒ 미진행 ⇒ 활동방식 미채택

〈 환 경 분 야 〉

1. RDF/SRF열병합발전소 반대활동

□ 필요성

◦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문막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발전소의 추진이 늦추어지고 있음. 2015년 말에 결성된 '청정건강도시 원주지키기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활동을 지속하여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연료를 변경하거나 중단을 목표로 활동해야 함.

◦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 환경공개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 논의를 마치고 시료채취와 분석을 통한 위해여부 검증에 들어가는 만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함.

◦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지정문제에 대한 대처는 대규모 산지 및 자연자원에 대한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에 가려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관광단지 지정 및 화훼단지 개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활동개요

◦ RDF/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활동(기자회견 등)

◦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 환경공개검증위원회 운영

□ 활동내용

◦ RDF/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1/1)

◦ 청정건강도시 원주지키기 시민모임 회의 (3/4)

◦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5/31, 원주시청 브리핑룸)

◦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산자부-주민대책위 간담회 (6/1, 한라대학교)

◦ 원주KBS인터뷰,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 TMS측정 관련 (6/13)

◦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공개검증위원회 회의 (6/16)

◦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문막 학부모들 방문 (6/23)

◦ 문막주민대책위원회,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7/5)

◦ 화훼관광단지 지정 보류 요구 성명서 발표 (11/2)

□ 활동평가

◦ 2016년 1월에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환경공개검증위원회 활동과 관련

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시민대책위 활동이 중단되었고 청정건강도시 원주지키기 시민모임 또한 적절한 활동방식을 찾지 못해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2016년 5월, 참빛가스의 자료를 받아 LNG로의 연료변경, 6월의 산자부와 주민대책위의 간담회, 7월의 김기선 국회의원이 주관한 문막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발표 등 공격적인 상황대처가 이어졌음. 특히 문막주민의 여론조사결과 74%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었음.

◦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의 TMS 측정결과 몇몇의 측정결과가 기준을 초과하여 언론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후속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검증을 위한 조사 및 조사결과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산발적인 활동에 그쳤음.

◦ 하반기에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산발적인 활동에 그치고 말았음. 산자부의 주민수용성(주민이 반대하면 진행하지 않는다) 입장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홍보활동의 미진행은 2016년 SRF반대활동에서 주민 및 주민대책위와 협력관계 유지 등의 관계문제에 원천적인 고민을 진행해야 함을 숙제로 제시하고 있음

2.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 반대활동

□ 필요성

◦ 설악산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 그린리스트 등재지역, 국립공원, 국내 최초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71호임.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어 반대활동이 진행됨.

◦ 2015년 시작한 강원도청 노숙농성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반려요구를 위해 2015년 말에 시작한 원주환경청 항의농성 및 비박농성 등 강력한 반대활동의 유지와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음.

◦ 박근혜정부 및 강원도, 양양군 등 설악산케이블카를 둘러싼 추진세력들의 강력한 추진드라이브를 저지한다기 보다는 2016년 반대활동을 유지하여 2017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지연 활동이 주요한 목표였음.

□ 활동개요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강원행동, 원주모임을 통해 행정절차 지연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 문화재위원회 대처활동을 통해 현상변경 심의 지연

□ 활동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1/12)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요구 원주지방환경청장 면담 (1/19)
◦ 원주지방환경청 기습 점거농성(1/25)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전국행동 공동회의 (2/3)
◦ 설악산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양양군청 참여촉구 간담회 (7/14, 양양군청)
◦ 설악산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간담회 (7/25,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7/26)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국민행동 합동회의 (7/27, 10/3)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 회의 (8/17)
◦ 설악산케이블카 전국동시 국립공원 캠페인 (8/28)
◦ KBS라디오 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건 (10/13)
◦ 국회 앞 1박2일 농성 (10/14)
◦ KBS시사프로그램 강냉이 인터뷰 (11/7)
◦ KBS강릉 라디오 인터뷰, 양양군수 재기수사명령 관련 (11/23)
◦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 촉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12/26)
◦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부결 (12/28)**

2-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 필요성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활동을 위해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결집이 필요했음.
◦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와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상임대표의 제안으로 구성되었으며 김경준 상근활동가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음.

□ 활동내용

◦ 집행위원회 (1/4, 1/16, 3/16, 5/19, 6/9, 7/18, 7/27, 8/3, 9/23)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활동 정책 TF회의 (1/18)
◦ 원주지방환경청 비박농성 100일 집중문화제 및 준비회의 (1/28, 1/29, 1/3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활동방안 모색 간담회 (6/2)

□ 활동평가

◦ 2016년 1월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접수에 대처하기 위해 12월에 항의농성의 시작과 1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에 돌입하여 2017년 1월 10일에 비박농성을 철수함.

◦ 4월까지 원활한 활동을 보였으나 5월에 들어와서 원주모임 일부와 의견충돌 등으로 인해 강원행동의 집행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6월에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위원회를 복원함.

◦ 6월 이후, 활동의 장이 양양군청 앞으로 옮기게 되며 이는 강력한 찬성여론을 가지고 있는 양양군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2.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원주모임

□ 필요성

◦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으로 원주모임이 구성됨.

◦ 원주지방환경청에 대처하고 원주지역내 홍보활동이 필요하였음.

□ 활동내용

◦ 원주모임 회의 (1/4, 1/12, 2/2, 6/16)

◦ 원주지방환경청 1인 시위 참여 (1/6, 1/13, 1/27, 2/17)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원주시민단체 대표자회의 (3/15, 4/7, 4/12)

◦ 후원행사준비모임 및 후원행사 (3/28, 3/31)

□ 활동평가

◦ 원주지방환경청 앞의 비박농성은 참여하지 못했으나 1인시위 및 후원행사 등에 참여함. 하지만 3월 이후 1인시위 및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고 갈등조정협의회의 참여 등 활동방식과 관련한 의견 충돌로 인하여 김경준 상근활동가가 강원행동 집행위원에서 보직 해임됨. 이후 국민행동 및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중심으로 활동함.

2-3.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는 민감한 환경사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진영과 찬성의 입장인 추진세력(업체), 전문가, 지방환경청이 참여해서 협의하는 기구로서 화천 백암산케이블카 및 울산 신불산케이블카 추진사업에서 운영된 사례를 가지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심의과정 지연을 위해 제안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동의로 김경준 상근활동가가 참여함.

□ 활동내용

◦ 회의 (8/25, 9/8, 9/28, 10/11, 10/17)

◦ 사전회의 (9/5)
◦ 설악산 현지답사 (9/27)

□ 활동평가

◦ 5차례의 회의와 1회의 설악산 현장답사를 진행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5회차 회의에서 아고산대 보호방안과 산양의 주서식지 논란에 이견이 매우 커서 조정되지 않음.
◦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의해 절차지연이라는 애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지만 과정에 돌출된 '슈퍼맨 조사자', '밀렵범죄 사실이 있는 조사원 운영', '유령전문가'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작 및 부실작성을 드러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2-4. 기자회견 및 집회

□ 활동내용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중단 요구 기자회견 (1/12, 원주지방환경청 앞)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긴급 기자회견 (1/20, 원주지방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기습 점거 농성 (1/25)
◦ 설악산케이블카, 박그림 등 3인 석방요구 기자회견 (1/27)
◦ 설악산케이블카 각 정당 입장질의 기자회견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양양군민 집회 (7/5, 양양군청 앞)
◦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기자회견 (7/26, 광화문사거리)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양양군 집회 (8/4, 양양군청)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설악권집중문화제 (9/1, 낙산해수욕장, 양양군청)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촉구 기자회견 (10/27)
◦ 설악산케이블카, 8적 규탄 기자회견 (11/8)
◦ 설악산케이블카 양양군수 재기수사명령 환영 기자회견 (11/21)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고발 기자회견 (12/1)

□ 활동사진





□ 전체 활동평가

◦ 설악산케이블카사업(설악산 오색삭도추진사업)은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에서 부결되어 추진이 매우 어렵게 되었음.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초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로만 판단했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후에 최순실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라는 의혹이 매우 큼. 이는 설악산 케이블카 2차 추진사업이 박근혜대통령 당선부터 1년동안 진행되었음에도 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전경련의 산악관광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그리고 김종 문화부제2차관과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의 적극 결합 등을 통해 조건부 통과된 것에서 알 수 있음.

◦ 1,2차 사업과는 다르게 세번째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사업은 대기업과 정부의 의지가 매우 심대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지방정부의 성과욕심과 지방정치인 및 지방여론이 가세되면서 매우 힘겨운 활동이었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부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국립공원케이블카 추진사업을 반대하는 환경진영의 지속적이고 헌신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환경영향평가절차 및 문화재위원회 절차에 대응하는 활동방식은 그간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진영내에서도 찬반의 여론이 있었음. 정확한 활동평가를 통해 향후 활동방식으로 고민되어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음.

◦ 전경련 등의 산악관광종합개발계획은 끝나지 않은 책동임을 분명히하며 계속해서 대처해야 하며 환경진영, 특히 산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환경진영 내에서 대안과 세련된 대처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사안임.

3. 원주시 악취 문제

□ 필요성

◦ 7월에 원주 전 지역에 원인미상의 악취가 발생하여 대처하였음.

□ 활동내용

◦ 원주시민 악취 모니터링 제보 문자 접수 (8/1~현재)

◦ 원주시 악취 관련 성명서 배포 (8/1)

◦ 원주MBC 인터뷰 (8/3)

◦ KBS원주 라디오 인터뷰 (8/4)

◦ 원주MBC 라디오 인터뷰 (8/5)
◦ 원주KBS 인터뷰 (8/9)
◦ 원주시 악취 관련 환경복지국장과 간담회 (8/11)
◦ 악취 관련 성명서 발표 (10/20)
◦ KBS원주 다리오 인터뷰 (10/24)
◦ KBS원주 라디오 인터뷰 (11/7)

□ 활동평가

◦ 7~8월에 발생한 원주지역의 악취는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를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차량에 판매하는 '강원바이오에너지'가 원인으로 강력히 추정되지만 원주시는 강원바이오에너지, 제일유화, 삼양식품, 축산분뇨처리장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조사 및 행정명령을 처분했음. 12월에 제일유화만 기준치 초과로 2차 명령을 받았음.
◦ 회원과 원주지역 온라인 모임인 '토닥맘' 회원들을 중심으로 악취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보를 받아 언론사에 제공하고 원주시 행정을 대처하는 새로운 활동을 진행하였고 원주시에는 우산동과 가현동 지역을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관련 행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진행하지 않았음.
◦ 가현동 지역의 악취는 매년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4. 가리왕산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 필요성

◦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통한 생태복원계획의 수립과 이에 필요한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

□ 활동내용

◦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 전체회의 (4/6, 11/22)
◦ 독일방송, 가리왕산 촬영 지원 (2/20, 가리왕산)
◦ 독일 ARD라디오 방송 인터뷰 (7/19)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생 가리왕산 탐방 안내 (10/1)

□ 활동평가

◦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 11월 회의에서, 2015년 말에 확정된 양묘밀식에 의한 복원계획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최소 2018년이 되어야 양묘가 진행될 것이고 최소한의 양묘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예정된 2019년에 생태복원의 추진이 어렵게 됨.

◦ 강원도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하단부에 312실 규모의 호텔건립을 승인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호텔을 중심으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판단되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

5. 한강유역네트워크

□ 필요성

◦ 2013년부터 강원시민사회연구원과 연계활동으로 한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 한강유역네트워크가 결성됨.

◦ 한강유역네트워크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

□ 활동내용

◦ 한강유역네트워크 확대 운영위원회 (1/11, 2/16, 12/6)

◦ 한강유역네트워크 토론회 '한강유역네트워크의 미래' (10/4)

6. 캠프롱 반환

□ 필요성

◦ 원주시가 미군기지 캠프롱부지 매입비용 665억원을 완납하고 기지반환을 요구했지만 SOFA조항상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및 관련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단체에게 조속한 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은 후 후속논의 및 관련 활동이 필요했음.

◦ 원주환경연합은 캠프롱 미군기지의 반환이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보다는 시민에 의한, 시민이 조성하는 환경-문화공원으로 목적을 수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활동내용

◦ 원주시 부시장 주재, 캠프롱 조기반환 사전간담회 (2/11, 원주시청 부시장실)

◦ 캠프롱 미군기지, 원주시민사회단체 간담회 (5/16, 원주여성민우회)

◦ 캠프롱 미군기지, 확대간담회 (5/26, 원주시청 대회의실)

◦ 캠프롱 미군기지, 원주 시민사회단체 회의 (11/2, 원주여성민우회)

□ 활동평가

◦ 원주시는 캠프롱의 반환이 '선복원 후반환'이라는 환경부의 입장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가 '선반환 후복원'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음.

◦ '선반환 후복원'의 입장을 동의할 순 없지만 지역민의 요구와 우리단체가 참여한 환경-문화 공원 조성계획을 위해 지역 현안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함. 하지만 캠프롱이 환경단체 때문에 반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일방적인 목소리에 반발하여 간담회가 결렬됨

◦ 원주시의 재차 요청에 의해 시민단체만의 후속논의에서 반환이나 복원 등의 결정에 앞서 캠프롱 오염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파하고 환경부 등과 면담과 확인과정을 선행하고 오염이 미미할 때 원주시 등과 관련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음을 결정함

◦ 우리단체의 목적과 원주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선복원 후반환' 입장에서 일정부분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을 운영위 논의에서 결정함.

7. 기타

◦ 여산골프장 성과 보고대회 (1/26, 원주시의회 모임방)
◦ CBS원주 라디오 인터뷰 (1/28)
◦ 용인 시멘트연구소 반대 주민싸움 승리 잔치 참석 (4/17)
◦ 강원도 주관, 산악관광자문위원회 회의 (4/15, 7/28, 8/30)
◦ 강원도 주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이행 점검 (4/19, 4/27)
◦ 북부지방산림청 주관, 벌채조림평가위원회 (4/29)
◦ 강원발전연구원 주관, 지장천 환경피해액 산정 용역 간담회 (5/9)
◦ 춘천환경연합 주관 옥시 불매 기자회견 (5/12, 춘천 롯데마트 앞)
◦ 강원생명평회회의 생명민회 (5/20)
◦ 환경올림픽을 위한 행동과 강원도자원순환사회 미래비전회의 (5/27,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 강원CBS 라디오 인터뷰 (6/1 - 방역살충제 문제)
◦ 강릉KBS 라디오 인터뷰 (6/7 - 방역살충제 문제)
◦ 가습기 살균제 강원도 피해자 현황 2차 기자회견 (6/14, 강원도청 브리핑룸)
◦ 환경올림픽을 위한 강원도자원순환 미래비전 회의 (7/12,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 춘천KBS라디오 인터뷰(7/18, 강원도 미세먼지 관련)

◦ 500kV HVDV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환경운동연합 내부 회의 (7/22)
◦ 청정강원21 주관, 자원순환 간담회 (7/28)
◦ 원주천댐 자문협의회 회의 (9/9)
◦ 가습기살균제 관련 강원도 피해현황 보고서 언론사 배포 (9/12, 12/20)
◦ 북부지방산림청 주관,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 (9/23, 9/29, 9/30, 10/6, 11/17, 9/22)
◦ 강원도청 주관,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 (11/29)

〈 환 경 교 육 분 야 〉

□ 필요성

◦ 환경과정에 대한 교과서가 만들어졌음에도 강원도에는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한 곳도 없고, 구체적인 환경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반인들은 흥미를 가질만한 환경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도 없고, 교육이 개설되고 있지 않음.

◦ 2006년 이후 양성된 숲해설가 회원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환경분야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환경분야 교사역량의 운영과 강화와 함께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1. 강원도교육청 환경단체 보조사업 “자연사랑 교실”

□ 활동개요

◦ 운영비용 : 9,866,303원(보조금 8,005,203원 / 자부담 1,861,100원)

◦ 운영횟수 : 방과후 숲학교(교동초)-8회, 방과후 숲학교(만대초)-8회, 자연여행-1회

◦ 연 참가인원 : 400명

1-1. 방과후 숲학교

□ 활동내용

◦ 교동초등학교(2학년)

회차	날짜	장소	인원	프로그램
1회차	4/8	교동초등학교	18명	◦ 학교숲의 이모저모 – 친구들과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기
2회차	4/29	백운산 휴양림	18명	◦ 숲과 문화 – 숲에서 자연을 느끼고 숲의 소중함을 알아보기
3회차	5/9	교동초등학교	18명	◦ 자원순환 ‘돌고돌아’ – 쓰레기란 무엇인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
4회차	6/7	원주시내 근대문화	18명	◦ 숲과 역사 – 원주의 근대문화유산과 도시숲 이야기
5회차	9/8	교동초등학교	19명	◦ 환경보물찾기 – 학교숲과 환경의 관계
6회차	9/29	치악체육공원	19명	◦ 몸도 마음도 튼튼 – 도시 공원숲에서 솔방울 올림픽
7회차	10/6	교동초등학교	20명	◦ 학교숲속 빙고 – 빙고게임을 통하여 학교숲 알아보기
8회차	10/13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20명	◦ 숲과 기후 – 숲과 기후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 활동사진





1-2. 방과후 숲학교

□ 활동내용

◦ 만대초등학교(3학년)

회차	날짜	장소	인원	프로그램
1회차	4/25	만대초등학교	28명	◦ 학교숲의 이모저모 – 선생님과 친구들 소개, 이름표 만들기
2회차	5/23	백운산 휴양림	28명	◦ 숲과 문화 – 숲에서 자연을 느끼고 숲의 소중함을 알아보기
3회차	6/13	만대초등학교	28명	◦ 자원순환 '돌고돌아' – 쓰레기란 무엇인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
4회차	7/11	원주시내 근대문화	28명	◦ 숲과 역사 – 원주의 근대문화유산과 도시숲 이야기
5회차	7/18	만대초등학교	28명	◦ 환경보물찾기 – 학교숲과 환경의 관계
6회차	9/6	치악체육공원	28명	◦ 몸도 마음도 튼튼 – 도시 공원숲에서 솔방울 올림픽
7회차	10/11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28명	◦ 숲과 기후 – 숲과 기후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8회차	10/17	만대초등학교	28명	◦ 학교숲속 빙고 – 빙고게임을 통하여 학교숲 알아보기

□ 활동사진




1-3 자연여행

□ 활동내용

◦ 일반시민, 학생, 학부모

날짜	장소	인원	프로그램
10.15~16	서천, 군산	36명	◦ 생태환경여행을 통해 생태계의 아름다움 체험 – 군산근대문화유산거리 탐방 – 여길욱선생님과 함께하는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 서천 국립생태원 탐방

□ 활동사진




2.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환경스토리텔러 양성교육'

□ 활동개요

◦ 원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그 외의 환경교육을 원하는 시민에게 기본교육 진행

◦ 인문학과 환경을 접합하여 일반환경교육을 진행하여 어려운 환경을 쉽게 이해

□ 활동내용

강	강의명	강사	날짜
1강	환경기초	김경준	3/29
2강	산림과 환경	엄태원	4/5
3강	하천과 환경	최준길	4/19
4강	안전한 먹거리	이병시	5/3
5강	기후변화와 환경	제현수	5/17
6강	영상매체와 환경	김은지	5/31
7강	토양과 환경	김경준	6/11
8강	해양과 환경	여길욱	6/11
9강	맴과 환경(도암댐을 중심으로)	심헌섭	6/14
10강	환경과 교육	조현숙	6/28

3. 오크밸리 숲해설

□ 활동개요

◦ 오크밸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숲해설 진행

□ 활동내용

◦ 오크밸리 숲해설 (4/9, 4/16, 4/23, 4/30, 5/5, 5/7, 5/21, 5/28, 6/4, 6/18, 6/25)

4. 기타 교육

□ 활동내용

◦ 춘천생명의숲 환경교육 '기후변화와 환경' (7/22, 춘천 마더센터)

◦ 춘천생명의숲 기후변화 교육 (8/22, 대명리조트)

◦ 상지영서대학교 행정과 환경교육 (10/27, 장구봉)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육 'NGO와 환경갈등' (11/15)

◦ 청정강원21 주관, 환경활동가 워크숍 교육 (11/16, 강원도 자연학습원)

〈 원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1. 운영위원회

□ 활동내용

◦ 운영위원회의 (1/6, 2/17, 3/14, 4/6, 5/18, 6/8, 7/13, 10/5, 11/16, 12/13)

◦ 정기총회 준비회의 및 정기총회 (1/18, 1/19, 1/21)

◦ 운영위원 : 26명(운영위원장 포함)

2. 회원모임

◦ 원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모임으로서, 누구나 어떤 주제로든 만들 수 있음.

2-1. 환경감시단

◦ 회원 수 : 192명

□ 활동내용

◦ 임원회의 (1/14, 2/12, 3/7, 4/12, 6/10, 7/1, 7/16, 8/11, 9/9, 10/13, 11/10)

◦ 월례회의 (1/28, 3/19, 4/21, 5/26, 6/23, 8/25, 9/22, 10/20, 11/24)

◦ 척사대회 (2/21)

◦ 야유회 (7/9)

◦ 정기순찰 (월 1회 이상)

◦ 정기총회 (12/7)

2-2. 숲사람들

◦ 회원 수 : 32명

□ 활동내용

◦ 공부모임(책모임) (1/13, 3/16, 4/20, 6/15, 9/27)

◦ 정기모임 (6/18)

◦ 워크숍 (12/17, 강릉)

2-3. 생명미술시민작가회

◦ 회원 수 : 12명

□ 활동내용

◦ 정기모임 (3/17, 4/28, 6/30, 7/21, 9/9, 10/25, 11/10)

2-4. 회원의날

◦ 4/26, 소소

3. 비정기 모임

◦ 정식적인 회원모임이 아닌 비정기적인 모임으로 회원, 비회원 모두 참석 가능

3-1. 영화모임

□ 활동내용

◦ 바람계곡의나우시카 (7/26)

◦ 줄리&줄리아 (8/30)

◦ 단테스 피크 (9/27)

3-1. 청소년동아리

□ 활동내용

◦ 오리엔테이션 (5/7, 6/11)

◦ 활동 (7/16, 8/13, 9/24, 11/5)

4.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 활동내용

◦ 대표자 회의 (2/15, 4/25, 6/21, 11/21)

◦ 활동가 회의 (4/5, 11/2)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비박농성장 지지방문 (2/15)

◦ 춘천환경운동연합 활성화 지원
(3/12, 3/24, 3/30, 4/4, 4/21, 5/3, 5/9, 5/19, 6/2, 7/15, 8/12, 8/16)

5. 중앙환경운동연합

◦ 중앙환경운동연합 비전수립 워크숍 (1/15,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환경운동연합 초록누리꾼 워크숍 (1/30~31,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회의 (2/27)
◦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2/27, 서울역사박물관)
◦ 에너지기후위원회, 착한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워크숍 (5/4)
◦ 전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처장단회의 (3/14, 8/18, 10/12)

5-1. 자연생태위원회

◦ 위원장 : 엄태원(원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회의 (1/25~26, 3/2, 11/3~4)
◦ 자연생태위원회 간담회 (9/26)

〈 연 대 활 동 〉

1.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운영위원 : 엄태원, 김경준
◦ 운영위원회 (1/14, 6/7, 12/27)
◦ 정기총회 (1/26)
◦ 미니바이오블리츠, 학교숲 지도 만들기 준비 및 교육 (3/28, 4/6, 4/19, 4/21, 4/22)
◦ 가뭄대비를 위한 물 수요관리 방안 토론회 (4/20,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 기후변화 주간, '지구야, 사랑해' (4/23)
◦ 초록이야기 (4/23, 5/21, 6/18, 7/16, 8/27, 9/24, 10/29, 11/12)
◦ 그린리더 양성교육 폐기물 교육 (6/20)
◦ 지속가능 SDGs 프로그램 개발 회의 (10/6, 10/26, 11/2, 11/30, 12/7, 12/28)
◦ 1020 ROUND TABLE, 우리가 바라는 미래 (11/19)

2.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운영위원 : 김경준
◦ 운영위원회(2/22, 4/22, 6/9, 11/4, 12/14)
◦ 정기총회 (3/2, 춘천시민연대)
◦ 하계워크숍 (8/23~8/24, 강릉 소금강에코센터)
◦ 강원도 낙천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3/2, 강원도청 브리핑룸)

3. 원주시민사회단체 모임

◦ 정기모임 (3/1, 4/1, 5/13, 7/1, 9/2, 10/4, 11/1)
◦ 원주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1/16)
◦ 척사대회 (2/20, 원주자활센터)

4. 강원시민사회연구원

◦ 정기총회 (2/22)
◦ 환경컨설턴트 교육 (4/26, 5/10)
◦ 수중생태모니터링 (8/13, 9/24)

〈 일 반 지 원 사 업 〉

1.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 필요성

◦ 환경오염문제와 오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민들의 환경인식 조사의 필요함.

◦ 원주환경운동연합 회원모임 '환경감시단'의 안정적인 모니터링 활동 지원이 필요함.

◦ 회원 및 시민들에게 일반 환경교육(수질포함)이 필요함.

□ 활동개요

◦ 운영비용 : 7,060,000원(보조금 6,000,000원 / 자부담 1,060,000원)

◦ 시민환경모니터링 및 시민환경교육

◦ 하천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됨.

□ 활동내용

◦ 보고서 발간

◦ 시민환경모니터링

– 시민환경모니터링단(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감시단)이 감시활동을 진행함. 팀별로 정기순찰 및 비정기순찰을 진행하고, 발견된 오염원을 온라인 '밴드'를 통해 공유한 후 처리 방법 또는 처리 과정을 논의함.

– 심각한 문제가 있는 현장은 방문 및 행정기관에 접수하여 처리 함.

◦ 시민환경교육

□ 활동사진





□ 활동평가

◦ 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이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를 통한 감시활동이 정착되고 있음.

〈 기 타 〉

1. 토론/자문/위원회/기자회견 등

◦ 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 2분과)
  - 2/16, 3/10, 3/29, 4/19, 5/19, 5/24, 6/16, 6/21, 7/19, 7/26, 9/5, 9/6, 9/27, 10/11, 11/1, 11/8, 11/24, 12/6, 12/16, 12/23

◦ 원주의료원 인사위원회 (1/18, 8/26)
◦ 한전경인건설처 워크숍 환경 강의 (1/15)
◦ 한전 경인건설처 녹색환경자문위원회 (2/24, 7/7, 11/10)
◦ 태백국유림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채용 심사 (2/26, 3/11)
◦ 세계두루미의날 기념 토론회-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3/3, 국회도서관)
◦ 더민주 비례후보 심기준 도당위원장 낙천요구 기자회견 (3/17, 더민주당 당사 앞)
◦ 원주청년 단톡방 회의 (3/21, 4/18)
◦ 강원도교육청 주관, 시민사회단체 정책토론 간담회 (4/18)
◦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김문기 규탄대회 참석 (5/2)
◦ 강원도교육청 주관,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회의 (7/14, 12/21)
◦ 상지대학교 교육부 특별감사 관련 기자회견 참석 (8/8)
◦ 전국 환경활동가 대회 (9/2)
◦ 강원지속가능발전대회-자원순환미래 비전 토론회 (9/6,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 강원 인권활동가 워크숍 (11/3~11/4)
◦ 박근혜퇴진 원주비상행동 집행위원회 (12/5)
◦ 다음 같이툰(웹툰) 제작 회의 (12/21, 중앙환경운동연합)

2. 특별 행사

◦ 물의날 기념 원주천 캠페인 (3/19, 원주천 새벽시장→치악교)
◦ 2016 어린이날 큰잔치 부스 '모여라! 어린이 초록수호단' 운영 (5/5)
◦ 바이오블리츠 코리아(양구) 체험부스 운영 (6/25~26)
◦ 강원대학교 하계인턴 1차 (6/27~7/22, 건축공학과 이슬기)
◦ 강원대학교 하계인턴 2차 (7/25~8/19, 물리학과 강병주)

2016년 수지계산서

원주환경운동연합 2016년 12월 31일 현재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경상 수익	회 비	77,421,000	인건비	활 동 비	38,300,000
	일반사업수익	7,117,006	관 리 운영비	교 통 비	1,702,800
	후 원 금	17,411,200		도서인쇄비	511,200
	잡 수 익	7,238		문서발송비	763,640
	차 입	0		소모임운영비	8,473,500
과제수익	도교육청보조	8,006,513		수 용 비	1,616,117
	민간수질보전	7,063,092		시설운영비	348,500
				식 비	1,481,700
				임 차 료	6,000,000
				자료구입비	0
				제세공과금	7,473,900
				지급수수료	664,020
				출 장 비	2,045,000
				통 신 비	695,000
				회 의 비	1,185,000
			5대 보험	국 민 연 금	1,558,000
				건 강 보 험	2,126,320
				고 용 보 험	399,570
				산 재 보 험	376,380
				장기요양보험	142,320
			사업비	일반사업비	20,971,510
				과제사업비	0
				연대사업비	1,160,000
				지역분담금	3,688,950
			기금적립		747,680
			기타(차입 및 회비반환)		1,081,038
			보조금	지출	14,815,203
				잔액	254,402
소 계		117,026,049	소 계		118,581,750
2015년 이월금		3,574,814	2016년 이월금		2,019,113
합 계		120,600,863	합 계		120,600,863

2015년~2016년 수지계산서 비교

원주환경운동연합 2016년 12월 31일 현재

수 입				지 출			
항 목		2015	2016	항 목		2015	2016
경상수익	회 비	64,517,000	77,421,000	인건비	활 동 비	34,950,000	38,300,000
	일반사업수익	18,029,465	7,117,006	관 리 운영비	교 통 비	2,051,500	1,702,800
	후 원 금	8,880,360	17,411,200		도서인쇄비	1,115,000	511,200
	잡 수 익	3,217	7,238		문서발송비	1,309,330	763,640
	차 입	2,000,000	0		소모임운영비	3,828,000	8,473,500
과제수익	도교육청보조	10,000,000	8,006,513		수 용 비	1,459,600	1,616,117
	민간단체수질	5,548,000	7,063,092		시설운영비	1,058,000	348,500
					식 비	944,450	1,481,700
					임 차 료	6,000,000	6,000,000
					자료구입비	86,400	0
					제세공과금	6,397,490	7,473,900
					지급수수료	616,680	664,020
					출 장 비	1,943,600	2,045,000
					통 신 비	600,000	695,000
					회 의 비	2,262,500	1,185,000
				5대 보험	국 민 연 금	1,259,160	1,558,000
					건 강 보 험	2,240,280	2,126,320
					고 용 보 험	316,030	399,570
					산 재 보 험	401,400	376,380
					장기요양보험	146,220	142,320
				사업비	일반사업비	19,415,940	20,971,510
					과제사업비	1,320,650	0
					연대사업비	1,086,150	1,160,000
					지역분담금	1,760,190	3,688,950
				기금적립		2,692,770	747,680
				기타(차입반환 등)		2,010,000	1,081,038
				보조금	지출	14,566,000	14,815,203
					잔액	982,000	254,402
소 계		108,978,042	117,026,049	소 계		112,819,340	118,581,750
전년이월금		7,416,212	3,574,814	명년이월금		3,574,914	2,019,113
합 계		116,394,254	120,600,863	합 계		116,394,254	120,600,863

2016년 자산 및 부채내역

(2017년 1월 18일 기준)

	항 목		내 역	비 고
자 산 및 적립금	임차보증금		15,000,000	2013. 9. 5 ~ 2018. 9. 4, 신태선
	환경센터 기금		12,000,000	2017.1.18 ~ 2018. 1. 18, 밝음신협
	퇴직적립금		6,200,000	신한은행(100-021-143447)
	예치금	전 화	384,000	엄태원 공동대표
		프린터	300,000	HP솔루션(2015.8.21)
	현 금		3,908,901	* 신한은행(3,812,934원, 100-021-981701) * 농협(19,509원, 307125-51-079761) * 해피빈 적립(66,449원, 100-031-241227) * 밝음신협(10,009원, 110-007-048472)
	소 계		37,792,901	
부채 및 차입금			0	
합 계			37,792,901	

2016년 월별 수입 - 지출 세부내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경상 수입	회 비	5,979,000	5,959,000	5,974,000	6,329,000	6,739,000	6,369,000	6,334,000	6,444,000	6,482,000	6,659,000	6,839,000	7,314,000	77,421,000
	일반사업수익	9,100	9,000	9,000	527,217	559,389	1,499,900	1,694,500	209,000	241,000	1,939,000	209,000	210,900	7,117,006
	후 원 금	2,179,000	1,630,000	652,200	670,000	240,000	513,000	3,637,000	250,000	40,000	1,026,000	1,860,000	4,714,000	17,411,200
	잡 수 익	5,332	0	0	0	0	1,113	0	0	0	0	0	793	7,238
	차 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 계	8,172,432	7,598,000	6,635,200	7,526,217	7,538,389	8,383,013	11,665,500	6,903,000	6,763,000	9,624,000	8,908,000	12,239,693	101,956,444
과제수익(도교육청, 민간수질보전)		0	0	0	8,003,612	13,263,612	13,265,938	13,265,938	13,265,938	15,065,938	15,065,938	15,065,938	15,069,605	
합 계		8,172,432	7,598,000	6,635,200	15,529,829	20,802,001	21,648,951	24,931,438	20,168,938	21,828,938	24,689,938	23,973,938	27,309,298	
전월 이월금		3,574,814	2,217,286	1,658,626	1,414,176	1,004,093	1,570,932	1,459,655	810,735	378,655	131,695	373,888	983,958	
월 재정수입 계		11,747,246	9,815,286	8,293,826	16,944,005	21,806,094	23,219,883	26,391,093	20,979,673	22,207,593	24,821,633	24,347,826	28,293,256	

인건비	활 동 비	3,050,000	3,400,000	3,200,000	3,200,000	3,200,000	3,200,000	3,250,000	3,300,000	3,300,000	3,200,000	3,200,000	2,800,000	38,300,000
관 리 운영비	교 통 비	171,300	77,000	127,000	168,500	167,000	174,000	170,000	137,000	188,100	84,400	90,500	148,000	1,702,800
	도서인쇄비	31,000	31,000	61,000	31,000	31,000	31,000	86,000	55,200	61,000	31,000	31,000	31,000	511,200
	문서발송비	125,760	34,370	21,930	29,250	0	154,430	175,920	28,370	21,930	135,710	0	35,970	763,640
	회원모임운영비	370,000	382,000	394,000	410,000	446,000	550,000	478,000	474,000	501,000	515,000	1,761,000	2,192,500	8,473,500
	수 용 비	238,340	75,900	241,350	109,720	80,200	95,690	125,400	128,180	134,500	87,307	113,410	186,120	1,616,117
	시설운영비	240,000	0	0	0	37,000	0	71,500	0	0	0	0	0	348,500
	식 비	105,000	90,000	168,200	136,000	149,500	99,000	214,000	97,000	50,000	111,000	106,000	156,000	1,481,700
	임 차 료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6,000,000
	자료구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세공과금	692,500	779,610	703,360	646,380	557,100	584,830	588,220	617,310	644,690	516,830	508,050	635,020	7,473,900
	지급수수료	55,640	55,980	56,620	53,820	52,520	53,160	52,680	53,960	54,100	54,060	55,760	65,720	664,020
	출 장 비	60,000	135,000	200,000	345,000	80,000	50,000	195,000	270,000	80,000	195,000	175,000	260,000	2,045,000
	통 신 비	200,000	0	0	99,000	0	99,000	0	99,000	99,000	0	99,000	0	695,000
	회 의 비	175,000	88,000	181,000	108,000	0	0	111,000	0	0	156,000	16,000	350,000	1,185,000
	소 계	2,964,540	2,248,860	2,654,460	2,636,670	2,100,320	2,391,110	2,767,720	2,460,020	2,334,320	2,386,307	3,455,720	4,560,330	32,960,377
5대 보험	국 민 연 금	106,180	127,460	176,440	127,460	127,460	127,460	127,640	127,580	127,580	127,580	127,580	127,580	1,558,000
	건 강 보 험	176,440	176,440	127,460	226,140	177,480	177,480	177,480	177,480	177,480	177,480	177,480	177,480	2,126,320
	고 용 보 험	22,440	26,940	26,940	38,050	35,650	35,650	35,650	35,650	35,650	35,650	35,650	35,650	399,570
	산 재 보 험	30,680	30,680	30,680	38,420	30,740	30,740	30,740	30,740	30,740	30,740	30,740	30,740	376,380
	장기요양보험	11,540	11,540	11,540	14,900	11,600	11,600	11,600	11,600	11,600	11,600	11,600	11,600	142,320
	소 계	347,280	373,060	373,060	444,970	382,930	382,930	383,110	383,050	383,050	383,050	383,050	383,050	4,602,590
사업비	일반사업비	2,668,400	1,905,000	440,200	1,323,080	852,320	2,142,870	5,073,550	678,670	612,820	2,977,230	778,000	1,519,420	20,971,510
	과제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대사업비	100,000	10,000	0	120,000	0	0	0	180,000	30,000	60,000	130,000	530,000	1,160,000
	지역분담금	167,060	209,740	211,930	211,630	435,980	377,380	340,040	333,340	349,770	340,220	351,160	360,700	3,688,950
	소 계	2,935,460	2,124,740	652,130	1,654,660	1,288,300	2,520,250	5,413,590	1,192,010	992,590	3,377,450	1,259,160	2,410,120	25,820,460
기금적립		232,680	0	0	0	0	0	0	0	0	15,000	0	500,000	747,680
기타(차입본환등)		0	10,000	0	0	0	0	500,000	0	0	20,000	0	551,038	1,081,038
보조금 과제지출 계		0	0	0	494,340	1,743,380	2,473,320	3,457,860	3,457,860	4,825,770	8,231,203	11,071,203	14,815,203	
보조금 과제잔액 계		0	0	0	7,509,272	11,520,232	10,792,618	9,808,078	9,808,078	10,240,168	6,834,735	3,994,735	254,402	
이월금		2,217,286	1,658,626	1,414,176	1,004,093	1,570,932	1,459,655	810,735	378,655	131,695	373,888	983,958	2,019,113	
경상지출 계		9,297,280	8,146,660	6,879,650	7,936,300	6,971,550	8,494,290	11,814,420	7,335,080	7,009,960	9,346,807	8,297,930	10,153,500	
재정 지출 합계		11,514,566	9,815,286	8,293,826	16,944,005	21,806,094	23,219,883	26,391,093	20,979,673	22,207,593	24,821,633	24,347,826	28,293,256	

2016년 월별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업비	일반사업비	총회	1,778,000	0	0	0	0	0	0	0	0	0	0	112,420	1,890,420
		함께사는길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864,000
		환경감시단	289,000	1,400,000		300,000	140,000	436,000	3,220,000	250,000		870,000	560,000	1,200,000	8,665,000
		케이블카	207,000	83,000	145,000	335,000	40,000	125,000	262,000	277,000	410,000	145,000	25,000	135,000	2,189,000
		환경교육	41,400	32,000	53,200	117,030	83,990	327,960	0	0	0	0	0	0	655,580
		회원여행	0	0	0	0	0	0	0	0	100,000	1,890,230	0	0	1,990,230
		물의날 행사	0	0	110,000	0	0	0	0	0	0	0	0	0	110,000
		회원의날	0	0	0	499,000	0	0	0	0	0	0	0	0	499,000
		어린이날 행사	0	0	0	0	456,330		0	0	0	0	0	0	456,330
		오크밸리 숲해설	0	0	0	0	0	580,000	1,450,000	0	0	0	0	0	2,030,000
		바이오블리츠	0	0	0	0	0	581,660	0	0	0	0	0	0	581,660
		청소년동아리	0	0	0	0	0	20,250	0	0	0	0	0	0	20,250
		영화모임	0	0	0	0	0	0	29,550	79,670	30,820	0	0	0	140,040
		환경운동연합	0	60,000	0	0	0	0	0	0	0	0	0	0	60,000
		자연생태위원회	209,600	0	50,000	0	0	0	0	0	0	0	0	0	259,600
		환경연합강원협의회	0	258,000	0	0	60,000	0	40,000	0	0	0	121,000	0	479,000
		해피빈 적립	51,400	0	0	0	0	0	0	0	0	0	0	0	51,400
		소계	2,648,400	1,905,000	430,200	1,323,030	852,320	2,142,870	5,073,550	678,670	612,820	2,977,230	778,000	1,519,420	20,941,510
	연대사업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	0	10,000	120,000				1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410,000
		월성원전대책위	0	0	0	0	0	0	0	50,000	0	0	0	0	50,000
		원주시민단체모임	20,000	10,000	0	0	0	0	0	0	0	0	0	0	30,000
		횡성환경연합	100,000	0	0	0	0	0	0	0	0	0	0	0	100,000
		원주여성민우회	0	0	0	0	0	0	0	0	0	0	100,000	0	100,000
		한강유역네트워크	0	0	0	0	0	0	0	0	0	0	0	200,000	200,000
		박근혜퇴진행동		0	0	0	0	0	0	0	0	0	0	300,000	300,000
		소계	120,000	10,000	10,000	120,000	0	0	0	180,000	30,000	60,000	130,000	530,000	1,190,000
	지역분담금	환경연합	167,060	209,740	211,930	211,630	218,980	224,380	223,040	221,340	229,770	226,220	233,160	239,700	2,616,950
		환경연합 강원협의회	0	0	0	0	217,000	153,000	117,000	112,000	120,000	114,000	118,000	121,000	1,072,000
		소계	167,060	209,740	211,930	211,630	435,980	377,380	340,040	333,340	349,770	340,220	351,160	360,700	3,688,950
	합 계		2,935,460	2,124,740	652,130	1,654,660	1,288,300	2,520,250	5,413,590	1,192,010	992,590	3,377,450	1,259,160	2,410,120	25,820,460

감사보고

- 회계분야 -

본 감사(회계분야 - 감사 성락철)는 2017년 1월 13일 14:00~17:50까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김경준 상근활동가(사무국장)로부터 2016년 수지계산서, 총계정원장 및 월별 재정보고서, 일계표, 자산 및 부채내역, 통장,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상근활동가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한 바,

1. 회계서류와 통장 및 영수증 내역이 일치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 2016년은 회원여러분들 모두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가 노력한 것 만큼의 과실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 원주환경연합도 출범한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4. 차제에 활동가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법하게 적립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5.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한 활동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2017년 1월 13일

감사(회계분야) 성 락 철 

– 사업분야 –

본 감사(사업분야 – 감사 제현수)는 2017년 1월 17일 10:00~12:00까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김경준 상근활동가(사무국장)로부터 2016년 사업성과 판단표, 사업결과 요약 보고서, 활동일지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상근활동가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1. 2016년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회원,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환경운동단체로 굳건히 자리 잡은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미군기지 캠프롱 시민공원 추진, 악취 문제 등에 관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문제를 부각시키고 여론을 환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의 열정적인 활동은 강원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대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원주와 강원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주환경운동연합이 왕성하고 내실있는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단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간 소통을 위한 일상 활동을 강화하여 조직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감시단 등 다양한 회원 모임의 경우,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원주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의 확대, 온라인에서의 소통 활성화, 적극적인 연대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원주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지난 20년 동안 임원 및 회원, 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운동 20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원주환경운동연합 2030년 계획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원주의 미래를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사업분야) 제 현 수 

정관개정(안)

해당 조	현행	개정	설명
16조 (운영위원회)	4) 운영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원소모임은 1명 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원소모임은 1명 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의 회원모임 선출의 의무를 명시 당연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와 회원모임 간에 소통과 교류에 우선한다.
22조 (소모임)	원주환경연합은 회원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의 참여를 위해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22조 **(회원모임)**	표현의 수정 - 정관내 소모임을 '회원모임'으로 전부 변경한다
오타 수정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상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상벌) 2)원주환경연합의 명예를 심해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총회) 2)총회 성원은 제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 및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상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상벌) 2)원주환경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총회) 2)총회 성원은 제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017~2018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추천(안)

□ 공동대표

- 강신범
- 김영규
- 엄태원

□ 감사

- 성락철(무위당사람들 회장)
-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운영위원

- 안태성(당연직, 환경감시단)
- 정인환(당연직, 환경감시단)
- 생명영상나눔이(당연직, 임주열)
- 김길선(선출직, 지속)
- 박종만(선출직, 지속)
- 박철우(선출직, 지속)
- 원규희(선출직, 지속)
- 전숙희(선출직, 지속)
- 차경익(선출직, 지속)
- 이운식(당연직, 환경감시단)
- 조은자(생명미술시민작가회, 당연직)
- 숲사람들(당연직, 박애종)
- 박성현(선출직, 지속)
- 박양욱(선출직, 지속)
- 용정순(선출직, 지속)
- 이광희(선출직, 지속)
- 조현숙(선출직, 지속, 상근활동가)
- 김법성(선출직, 신규, 대성고등학교 교사)
- 문응기(선출직, 신규, 전 북원산악회 회장)
- 박광삼(선출직, 신규, 매일자동차매매상사 대표)
- 서연남(선출직, 신규,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지원팀장)
- 이재영(선출직, 신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원)
- 오영환(선출직, 신규, 자연과 사람 대표)

□ 상근활동가

- 김경준(사무국장)
- 조현숙(교육팀장)
- 김은지(자연생태팀장)

2017년 활동계획(안)

1. 기조

① 강원도 상황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과도한 지방재정의 투입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혼돈,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부재와 기업후원금의 부족으로 동계올림픽 준비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산지개발에 대한 재벌과 토착기업의 요구 및 지역정치인의 이해가 맞물려 장기적으로 자연자원의 훼손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생태복원의 중단, 백두대간 및 강원도 산지개발의 가속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강원도민 삶의질의 급격한 저하로 현상화 될 것이다.

② 원주시 상황

중앙공원 조성, 남원주역세권 개발, 부론산업단지 확대,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캠프롱개발, 원주여고부지 개발, 정지뜰 저류공원 등 대규모 토목개발사업에 과도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시민이 부담해야 할 막대한 채무로 쌓여가고 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시민이 체험하는 환경질이 악화되고 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녹지를 줄이는 행정, 원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행정과 시민들의 왜곡된 환경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및 SRF열방합발전소, 쓰레기 문제에 대해 재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원주환경연합의 상황

2016년 원주환경연합은 양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환경감시단에 치중된 성장세를 보였고 회원관리 등 내실화에 부족했다. 회원의 증가와 회원모임이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회원의 자발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회원모임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직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모임에 현재보다 진전된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중점활동

- 강원도 산지개발 및 백두대간 개발가속화 반대활동
- 문막 화훼특화관광단지 및 SRF열병합발전소 반대활동

3. 주요활동

① 원주환경연합 내실화

- 회원증대 목표 : 550명
- 환경감시단의 환경오염현장 모니터링 및 폐기물 정책제안 활동
- 청소년 환경동아리 육성
- 영화보기 모임 등 비정기적 취미형 회원모임 추진
- 운영위원회 등 회원교육의 강화

② 환경적 영향력 확대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온라인 공간확보 및 온라인 홍보(주간 브리핑) 추진
- 전체회원 만남의 날 추진(연 4회)

③ 환경교육사업의 지속적 추진

◦ 단체고유사업

- 생태환경체험교육 프로젝트(지속사업, 강원도교육청)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지속사업, 원주시)
- 환경스토리텔러교육사업(지속사업)

◦ 외부단체 교육사업

- 원주시 수중생태모니터링(지속사업,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연계)
- 원주시 폐기물감량 교육홍보사업(지속사업,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연계)

④ 주요 환경활동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활동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활동 추진
-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 수립 및 대처활동
- 한강유역네트워크 활동과 수질오염총량제 대처활동
-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활동 추진
- 환경-생태를 토대로 한 원주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캠페인 및 정책제안활동
- 대기오염 줄이기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만들기 캠페인 활동

⑤ 일상 환경활동

- 물의 날, 환경의날 등 환경기념일 캠페인(연 4회 이상)
- 회원스티커(홍보물) 제작 및 게시활동
- 회원모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제도준비 활동

2017년 예산계획(안)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경상 수익	회 비	90,000,000	인건비	활 동 비	44,400,000
	일반사업수익	3,170,000	관 리 운영비	교 통 비	1,700,000
	후 원 금	18,000,000		도서인쇄비	1,300,000
	잡 수 익	10,887		문서발송비	1,300,000
	차 입	0		회원모임운영비	7,500,000
				수 용 비	1,300,000
				시설운영비	1,400,000
				식 비	1,500,000
				임 차 료	6,000,000
				자료구입비	200,000
				제세공과금	7,500,000
				지급수수료	800,000
				출 장 비	1,800,000
				통 신 비	1,100,000
				회 의 비	1,200,000
			5대 보험	국 민 연 금	2,000,000
				건 강 보 험	2,300,000
				고 용 보 험	500,000
				산 재 보 험	500,000
				장기요양보험	200,000
			사업비	일반사업비	20,000,000
				과제사업비	0
				연대사업비	1,000,000
				지역분담금	5,200,000
			기금적립		1,200,000
소 계		111,180,887	소 계		111,900,000
2016년 이월금		2,019,113	2018년 이월금		1,300,000
합 계		113,200,000	합 계		113,200,000

2016년 활동

기자회견문 모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는 한국을 떠나라

2016년 4월 4일까지 가습기살균제에 피해를 입은 신고자가 1,528명이고 이중 239명이 사망하였다. 이 중에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을 사용하고 103명이 사망하였다. 우리가 옥시를 살인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렛 등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은 2,500이다. 일반적으로 독성값이 1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무려 2,500배의 독성이다. 우리가 롯데마트 앞에서 옥시의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옥시 영국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주주총회를 항의방문한 유가족에게 '개인적인 유감'이라는 뻔뻔한 표현을 사용했다.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후 대책을 내놓아도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데, 기만적인 옥시의 태도에 천불이 난다. 재차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시민들께 호소하는 이유이다. 또한 시민환경단체로서 부족한 역량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것에 참담함과 잘못을 사과한다.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며,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103만명을 사망케 한 옥시는 원료로 사용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

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춘천시민들과 강원도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춘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는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속 2천여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강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정당하게 분노하는 강원도민의 참여를 부탁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옥시제품 불매활동의 지류가 될 것이고 비도덕하고 살인기업인 옥시의 퇴출이 있을때까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 5. 12.

춘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담당 : 김경준 010-5373-4670)

시민건강 위협하는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SRF열병합발전소 반대하는 주민의견(주민수용성) 수용해야
폐기물 고형연료(SRF)보다 주민건강 덜 위협하는 LNG로 변경해야

문막 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업승인 결정여부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산자부의 사업이 승인된다고 해서 활동을 정리할 생각이 없다. 이는 33만명의 원주시민과 2만여 명의 문막주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4년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었다. 여기에 더해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와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에서 쏟아내는 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의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다.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건강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기에 시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원주시민의 57.5%가 '원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고, 문막읍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4.2%가 반대하였다. SRF열병합발전소가 입지할 예정인 지역의 주민의 65%가 반대하고 시민 57.5%가 반대하면 당연히 사업을 중단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주에너지만의 편을 드는 원주시장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원주시민과 문막주민들의 거센 반대의견에 환경부가 엄격한 관리기준 적용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사업지구인 문막읍의 대기질(미세먼지-PM_{10})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의 경우 법적기준(20㎍/S㎥)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3㎍/S㎥)을 제시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최대 24kg이 발생하고 운전하는 10년동안 배출하는 양은 87.6톤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이루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염화수소를 포함하면 하루 최대량이 1.2톤에 이르고 운전하는 10년 동안 4,380톤의 미세먼지가 쏟아진다. 어찌 문막주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가? 환경부는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주민의 건강위해도를 기준이 초과할 경우 LNG로 상업운전을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처음부터 LNG로 상업운전을 하면 주민의 걱정을 줄일 수 있다.

SRF열병합발전소의 스팀비용보다 LNG비용이 더 저렴하다. 원주에너지의 스팀 판매가는 톤당 45,000원이고 도시가스의 산업용 요금은 올해 37,009원으로 17%가 저렴하며 내년의 경

우는 31,361원으로 예상하여 30%가 저렴하다. 더욱 큰 문제는 SRF열병합발전소에서 잉여 스팀을 화훼단지 외의 지역에 공급한다면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문막주민들에게 가중되어 건강의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피해까지 줄 수 있다는 점이다.

SRF열병합발전소(원주에너지)는 SRF연료를 13개 업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중 11개업체가 원주외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위치한 2개 업체의 SRF의 원료가 되는 폐플라스틱을 원주외에서 공급받고 있다. 491톤의 SRF연료 모두를 외지쓰레기를 들여와서 원주에서 태운다는 얘기이며 문막주민은 피해만 보고 이익은 오로지 원주에너지만 가져갈 뿐이다.

원주시장의 주장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SRF가 저렴해서 추진한다고 했지만 LNG가 더욱 싸다. 시민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했지만 문막주민 65%가 반대해도 추진하고, 문막과 원주의 미세먼지를 가중시켜 주민의 건강피해를 끼치며, 외지쓰레기를 반입해서 기업만 배불리는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통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비상식적인 현재의 상황을 반대한다. 불통과 억지의 행정에 환멸을 느끼지만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때문에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주민 때문이라도 문막화훼단지 및 기업도시 SRF열병합발전소 반대활동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민과 주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의혹이 넘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꼼수에 부응하지 말고, 주민의 건강을 살피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원칙을 지켜 문막주민 65%가 반대하는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승인을 부결하거나 환경오염이 덜한 LNG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주시장에게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서명운동과 강력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원주시장이 상식을 회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2016. 5. 31

원주환경운동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부한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6월 30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의 청취 및 민원해결 요청에 대하여"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독선적 입장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에 의거한 상급기관(산업통산자원부)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해결 요청을 거부한 원주시에 강력한 징계가 마땅하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여러번 밝힌대로 주민이 반대하면 승인하지 않겠다(주민수용성)는 입장에 입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절차를 거부하였기에 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

셋째,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막화훼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SRF열병합발전소)가 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불허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하면 공급용량이 수요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면 안된다. 문막산업단지의 입주업체 8곳이 스팀사용을 포기하여 스팀공급량이 과도하게 되었고 도시가스 사업자와 중복되어 사업불허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넷째, 원주시장이 밝힌 "주민수용성에 대한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입장은 침소봉대와 더불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사기행위이다.
산업통상자원부(2014.5.29) 공문에 대한 원주시의 답변 내용(2014.9.19)을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주민설명회 3회와 유사시설 견학을 3회, 129명이 참여했다고 하면서 값싼 에너지의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설명회는 화훼특화관광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문막읍민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는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화훼단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주민들이 반대활동은 단 한건도 적시하지 않아 마치 모든 주민이 찬성한 것처럼 심각하게 주민의견을 왜곡하였다.

다섯째, 원주시장이 밝힌 "문막 주민대표 대부분이 참여하는 현안대책위가 찬성하는 등 주민수용성 검토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발언 또한 주민의견을 심각하게 왜곡한 사기행위이다.
현안대책위에 참여하는 개인을 누가 문막의 주민대표로 인정해주었는가? 그들 대부분은 토

지주 및 각종 이권과 연계된 소수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강행코자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방식, 활동내용들까지 비공개로 활동해오는 베일에 쌓인 단체로서 몇몇 안되는 그들의 생각이 문막 다수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하물며 그들이 주민대표라 치더라도 의사수렴도 하지 않은 몇 명 안되는 그들의 생각이 문막주민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진행한 문막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 64.2%의 반대의사가 더욱 타당한 지표이다.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동안 원창묵 원주시장은 독선과 민의의 왜곡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SRF가 친환경연료라고 주장한 점,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점, 값싼에너지이기에 추진한다는 입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니깐 이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거나 원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 발전사업자의 일이라고 떠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발전사업자의 일이라고 하면서 환경단체의 연료변경에 대한 질의의 답변서에는 연료변경이 불가하다는 자기모순을 증명하였다. 독선과 무지로 일관하고 있는 원주시장이 부끄럽다. 스스로 시장의 임무를 포기할 것을 권유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주시민의 민의가 적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민의견수렴 기간 동안 1만명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둘. 원주시장의 독선과 왜곡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게 그림자 행동을 진행한다.
셋. 문막읍과 원주시청 앞 및 도심 곳곳에서 무기한 1인 시위, 전단지 배포를 통해 원주시장의 거짓행정을 똑바로 전달한다.
넷.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연계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다섯. 문막화훼단지SRF열병합발전소 반대와 LNG로 연료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및 자생단체의 지지선언을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2016. 7. 5

문막읍SR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등 참가단체 일동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번영회, 녹색당강원도당, 새누리당, 정의당원주시위원회, 노동당강원도당위원회, 지정면번영회, 강원비정규센타, 호저면번영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원주시지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강원감영위원회, 자연보호원주시지부, 원주시고교연합회, 원주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불교청년연합회, 불교신도연합회, 원주생활협동조합

[성명서]

원주시는 강원바이오에너지 등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라

원주시 가현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우산동과 태장동 주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운동을 포함한 원주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원주시 강원바이오에너지,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우산공단내 삼양식품 등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발생하는 악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악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섞이게 되고, 혼합된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례로 악취배출 시설중의 하나인 강원바이오에너지는 지난 4월에 기준치를 초과하여 원주시가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6월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고 다시금 개선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개선명령과 같은 어쩡쩡한 행정조치로는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보다 엄격하고 엄중한 조치를 원주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주시는 가현동 지역을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라. 악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함께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를 요구한다. 강원바이오에너지는 건립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수차례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기술적인 문제로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강원바이오에너지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사업의 허가를 위해 신청했던 서류 어디에도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허가를 신청한 대로 설계, 시공, 운전을 하고 있는지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금번 악취사건이 단순히 오늘의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여기고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악취발생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악취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원주시가 악취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하루라도 빨리 악취문제가 해결되어 미세먼지에 이어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도시의 오명을 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원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대량악취 발생이후 4개월이 경과한 원주시 악취대책,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먼저 하고 악취자동측정기 설치해야 -

원주시의 악취대책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악취 모니터링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원주시 대책은 올 여름 강타했던 악취의 악몽을 내년에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불편과 곤란함을 외면한 무능력 행정이다.

악취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9월을 넘어서 악취발생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강원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우산동-가현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강원바이오에너지는 계속 기준을 넘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내년에도 악취는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고 시민들은 올해에 이어 악취의 악몽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원주시는 자동측정기로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이다. 한심을 넘어 나태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악취발생시설은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주시가 악취데이터를 축적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는가? 강원도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강원바이오에너지를 비호하기 위해서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저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악취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강원바이오에너지의 음식물 처리수의 반입과 처리에 대한 진단,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진단, 단계천 등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추가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대량의 악취가 발생하고 4개월이 지나서 원주시가 제시한 한심한 악취대책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당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장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주화훼관광단지 (Flower Fruit World) 지정을 보류해야 한다

원주화훼관광단지의 관광단지 지정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83만평의 대규모의 관광단지가 민자사업으로 원주시 문막읍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자금동원능력의 빈곤, 지하수 및 산림훼손 등 환경의 파괴, 화훼단지와 연계되어 있는 SRF(쓰레기연료)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묻지마' 관광단지의 지정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관광단지의 지정은 70%이상의 대상토지를 매입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문막화훼단지의 대상토지는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이며 계약금의 50%만 지불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자의 자금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계약금 74억원도 동원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믿고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용인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2. 최소한 50% 이상의 토지매입을 확인해야 한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관광단지의 지정만 이루어진다. 화훼관광단지안에 어떠한 시설과 컨텐츠를 담을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즉, 관광단지만 지정해놓고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의해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소한 토지매입이라도 이루어져야 사업추진의 의사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3. 화훼단지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청정연료(LNG)여야 한다.

화훼단지 인근에 SRF열병합발전소를 세워 쓰레기를 태운 에너지를 화훼단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원주시민의 57.5%, 문막주민의 64.2%가 쓰레기연료를 태우는 SRF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고 있고 쓰레기연료에 비해 LNG가 더욱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취소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

최근의 '최순실게이트'처럼 '묻지마' 원주시 행정을 방기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하여 문막주민은 물론 원주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책임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감당하려면 50% 이상의 토지매입을 주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지하수 사용으로 인하여 문막지역에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게 된다.

화훼관광단지는 하루 1,500톤 이상의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화훼를 키

우기 위해 온갖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토토미를 생산하는 문막지역에 공급할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되어 농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대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 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와 시민의 반대를 무시하며 이해되지 않는 사업을 강행추진하는 원주시를 믿기 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50%이상의 토지매입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식적인 조치이다.

2016. 11. 2

원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경준 네트워크활동국장, 010-5373-4670)

[기자회견문]

최순실 일가가 획책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진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를 참여했다고 하는 '유령전문가', 한 사람의 조사원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는 '슈퍼맨 조사자'라는 신조어와 함께 현지조사표가 절반이나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되고 부실되게 작성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평가서가 반려되어야 한다. 즉,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와 양양군이 애초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만들어냈던 자연환경조사서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자연환경조사서에 케이블카 부지가 아고산대 식생이 아니고 산양의 단순한 이동통로라고 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아고산대 식생대이며 산양의 주서식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되었기에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엉뚱한 서류를 가지고 심의한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국민과 강원도민을 상실케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전경련과 헌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유산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산악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전경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주역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이 지시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약700억원을 모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순실 일가의 사업을 철저히 지원해 준 김종 문화체육부 전 차관과 문화체육부가 '케이블카 확충 TF회의'를 설치하고 주도하였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결국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또한 최순실의 지시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

최순실일가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 의혹, 빙상경기장 사후활용계획 변경, 평창 및 횡성의 땅 매입 등 국정을 조정하고 사익을 획책하는 등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다. 이러한 최순실 일가에 휘둘려 국정을 파탄내고 우리나라를 공황에 빠뜨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당장 하야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전경련에 놀아난, 강원의 금수산하를 농단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를 규탄한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강원도민을 미혹시키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우려한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토건자본과 개발업자의 편에서 강원도의 금수산하를 농단한 결말은 결국 최순실에 놀아난 것이다. 부끄럽기 그지없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백의 자격을 상실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가 허수아비처럼 이리저리 휘둘린 부끄러운 작태를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반대' 투쟁으로 극복할 것이다.

2016년 11월 8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현상변경 심의를 부결하라

-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가 부결되어야하는 5가지 이유 -

1. 과거의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자연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에서도 이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하였음으로, 동 지역의 자연은 인위적인 시설을 금지하여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함” 1982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가 부결하면서 적시한 심의결과이다. 1982년 이후 이 결정을 뒤집을 어떠한 개발도 없었고 법제적인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현상변경이 부결되어야 한다.

2. 설악산 오색지구는 산양의 주서식처이다.

양양군이 조사한 산양정밀조사 결과를 보면 “성체 20개체, 아체 최소 4개체 총 24개체를 확인” 하였고, 이는 “2014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남설악 개체군조사의 결과인 24~36개체” 로 “남설악 전체면적에 비해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4개체 내외가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다. 남설악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산양이 살고 있다고 양양군 스스로가 밝힌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산양의 주서식처 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립공원삭도추진가이드라인’에 의거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상변경은 부결되어야 한다.

3.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최순실이 주도한 것으로 청산해야 될 사업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최순실이 주도한 것이다. 양양군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양양군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친개발-친기업의 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서도 2차례나 부결된 사업이다. 그런데 전경련과 최순실의 합작인 산악관광계획이 언급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동계올림픽추진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추진 지시 이후 3차 신청에서 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었다.

2차 신청시, 박근혜대통령 최임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공전한 2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된 이유는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때도 안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가 최순실 지시이후(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산양의 주요서식지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는 양양군 스스로 산양정밀조사에서 산양의 주요서식지라고 적시하면서 거짓된 내용임이 드러났다. 현상변경이 부결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4.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도 중요하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가 박근혜-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강행하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와 '아고산대 식생대'라는 '삭도추진 가이드라인'의 벽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환경평가업체와 양양군의 말도 안되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면서 말이다.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조작 및 직무유기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결과를 보고난 이후 현상변경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상변경이 부결이나 보류로 가야하는 이유이다.

5. 양양군의 거짓된 주장에 대해 상식을 되찾을 때이다.
양양군이 주장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이나 "산양이 이동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그동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절차는 정부위원이 빠진 채 진행되었지만 3차 공원위원회에서는 정부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통과되었다. 박근혜-최순실 지시로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이다. 또한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 이동통로라고 거짓된 주장으로 공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상변경을 부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위상과 상식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법, 행정, 상식이 틀린 잘못된 사업이다. 첫째_국립공원법이나 문화재법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둘째_대통령의 지시로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있고, 셋째_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을 비호하고 묵인해주고 있으며, 넷째_자손대대로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을 영리와 돈벌이로 전락케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재위원회가 박근혜-최순실의 적폐에 지혜롭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의 판단은 지금 이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대대로 물려받아야하는 판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12월 26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 김경준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사무처장, 010-5373-4670)

회원명부

2017년 1월 18일 기준 464명

간종찬 강경희 강대호 강미희 강상철 강신범 강영구 강영태 강윤숙 강철규 강철식 강태영 강희진
계규민 계서연 계주홍 고미영 고복만 고영국 고유건 고유민 고정섭 고준희 공우식 공제욱 곽도영
국태호 권대영 권영우 권오윤 권인석 권종화 권태원 권혁미 김갑태 김강희 김경석 김경준 김계영
김광수 김기호 김길선 김길중 김나연 김나영 김남기 김남조 김덕환 김동경 김동섭 김동수 김동식
김동열 김동혁 김두훈 김면래 김명곤 김명수 김명숙 김무남 김문섭 김문영 김미선 김미자 김민섭
김배현 김범중 김법성 김봉곤 김봉일 김상복 김석중 김석태 김선기 김선동 김선목 김선희 김세현
김소연 김수경 김순기 김순희 김연경 김연구 김영규 김영길 김영래 김영무 김영미 김영섭 김영성
김영수 김영신 김영재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영필 김영하 김완기 김완섭 김왈선 김용근 김용우
김원구 김원철 김원효 김유환 김은미 김은수 김은용 김응규 김익록 김인석 김장섭 김재구 김재용
김재춘 김정규 김정미 김정삼 김종남 김주원 김주인 김주태 김준연 김중배 김진복 김진열 김진용
김진철 김진철 김태석 김태섭 김태환 김학배 김한수 김해경 김해용 김현수 김현자 김현주 김혜종
김흥수 나복용 남수자 남은애 노병철 노석만 류관희 류성수 문규덕 문명학 문미숙 문응기 문정선
문정현 민경성 민병승 민준영 박경희 박광삼 박근석 박기군 박민규 박병섭 박병수 박상현 박성룡
박성수 박성현 박순덕 박애종 박양욱 박영금 박영수 박우순 박은수 박은하 박재덕 박정자 박종규
박종만 박종복 박종현 박종화 박준길 박지우 박철우 박한숙 박혁동 박형욱 박환근 박흥섭 방영수
배병호 배시한 배준형 배찬두 백귀헌 변금자 부상익 서기종 서분조 서연남 서용찬 석유진 석형근
성락철 손병용 손정민 송기헌 신기형 신대섭 신동선 신동숙 신명철 신미선 신병식 신선옥 신성주
신영철 신용섭 신용섭 신윤근 신정자 심상일 안관수 안명환 안승현 안영숙 안종남 안준민 안찬희
안치준 안태만 안태성 안현주 양근철 엄광호 엄안섭 엄영철 엄태원 여봉규 여인수 오동진 오성엽
오영환 오인호 오제순 왕영희 용정순 용한수 원규희 원노연 원민우 원병희 원성희 원인묵 원진연
유광수 유기형 유병헌 유석연 유은매 유종호 유진만 유태종 윤갑용 윤경용 윤석문 윤성식 윤용호
윤은정 이광순 이광희 이기선 이남수 이대섭 이동란 이동희 이두섭 이명신 이무춘 이미숙 이미숙
이병운 이병주 이빈호 이상선 이상용 이선미 이선화 이성용 이순옥 이순직 이시근 이연택 이영수
이영웅 이영화 이용환 이용훈 이우세 이운식 이원겸 이유민 이은옥 이은희 이인숙 이재영 이재영
이재윤 이재인 이재철 이재홍 이재희 이정남 이정북 이정숙 이정희 이종석 이 준 이진우 이창빈
이창열 이창재 이창호 이창환 이철수 이태구 이태희 이한욱 이한진 이향수 이현주 이현직 이형표
이혜숙 이희정 임길상 임동이 임병도 임선희 임영수 임종태 임주열 임창숙 임현숙 장금옥 장기향
장김현주 장동영 장봉근 장소정 장연옥 장영민 장춘학 장택수 장현문 장회순 전보경 전봉철 전부종
전숙희 전영원 전인귀 전재란 전정근 전정선 전제학 전중욱 정광화 정규원 정덕영 정동우 정두환
정명자 정 석 정연복 정운화 정인환 정재일 정정숙 정진만 정창기 정해중 정희택 제현수 조석곤
조영란 조영수 조윤주 조윤찬 조은자 조준환 조한구 조현숙 주용준 지석봉 지순근 지은희 지준근
진광장 진기철 진왕국 진혜영 차경익 차영배 차정식 채병준 채연희 천석주 최경희 최기식 최동수
최동오 최봉석 최세일 최승화 최시영 최양환 최영현 최영희 최 일 최정옥 최종영 최종일 최종현
최준길 최춘규 최혁진 최현구 최현택 최혜옥 최흥식 추교명 표광은 하영진 한경호 한광덕 한상용
한석구 한석운 한양수 한은경 한호연 함점순 허근무 허남일 현 각 홍범호 홍성태 홍성태 홍승표
황도경 황도근 황범순 황송자 황영호 황인수 황정욱 황지숙 황희민

비품내역

(2016. 01. 21. 기준)

번호	품명	기종 및 품번	수량	가격	구입년월일	비고
1	냉난방기	캐리어 CX-355F	1	2,490,000	2007.11	구입
2	컴퓨터	펜티엄(Pentium)4 1.6Ghz	1	2,250,000	2002.06	구입
3		조립식 컴퓨터	2	1,000,000	2013.09	구입
4		노트북 검퓨터 (LGESO)	1		2015.	기증
5		LCD모니터 20인치	1			기증
6		LCD모니터 22인치	2			구입
7		LCD모니터 24인치	1	215,000	2015.01	구입
8	프린터	HP Officejet pro X476dw MFP	1		2015.	임대
9		삼성CLX-3305FW	1			구입
10	프로젝터	LG RD-JT90 (DLP)	1	1,900,000	2006.03	구입
11	무선앰프	MIPRO MA-707 (무선)	1	1,100,000	2006.06	구입
12	무선공유기	Anygate RG-3000A	1	80,000	2006.03	구입
13	전화기	일반 유선전화	3			기증
14	책상	책상 120cm(흰)	1			김영규회원 기증
15		책상 120cm(갈)	1			김영규회원 기증
16		책상 80cm(흰)	2			김영규회원 기증
17		강의실책상	11	1,125,000	1997,2007	구입
18		차 진열 책상	1			기증

19	탁자	사각탁자(大)	2		1997.06	카톨릭센터 기증
20		사각탁자(中, 갈)	1			
21		사각탁자(小, 흰)	1			생명미술 기증
22		원형탁자	1		2000	카톨릭센터 기증
23	의자	책상의자(大)	1		1993	기증
24		책상의자(中)	4	97,800	2015.01	구입
25		식탁의자(中)	3		2000	기증
26		접의자(매끼)	41+4	1,170,000	1997.06	구입, 환경감시단 기증 (2009년, 20개)
27	연설대	Lecture Table	1	145,000	1997.06	구입
28	도서진열대	Display Stand(Book)	1		2002	기증
29	캐비닛	Steel Cabinet(大)	3		1993	
30		서랍형 Cabinet(中)	1			
31	다용도 선반	Angle Bars	1		1995	동아컴퓨터학원 기증
32		플라스틱책장	1		1997.06	정남교이사 기증
33	책꽂이	철제 앵글	3			
34		플라스틱(회색)	2			
35		나무 책장	1		2013	
36	보관함	4단 유리 찬장	1			
37		1단 보관함(양문형)	3			
38	연장선	Lead Wire	6	90,000	2000.06	구입
39	전기히터	SRR RION	1			김영규회원 기증
40	벽시계	일반 벽시계	1			우리교육사

41	변압기	웨이브텍 WP-3000V	1	18,000	1997.05	구입
42	냉온수기		1		2004.	무상임대
43	휴지통		7		1997.10	구입
44	거울		1		1997.06	원주생협 기증
45	선풍기		1		2012.08	엄태원회원기증
46	온열기	신일 라지에이터 온열기			2012.12	엄태원회원 기증
47	가습기					
48	옷걸이		1		1999	이광순회원 기증
49	야영장비		3		2001	구입
50	소화기		1		1999	최세일회원 기증
51	조끼		34	400,000	2002	구입
52	싱크대		1	120,000	1997.06	중고구입
53	가스렌지		1			
54	주방찬장		1		1997.06	경미애회원 기증
55	냉장고		1			기증
56	비디오자료		45			구입
57	도서자료		500			구입 및 기증
58	CD자료		15			환경연합 기증
59	DVD자료		4	132,000		구입
60	파티션		3			다자원 기증
61	청소기	업소용	1			김영규회원 기증
62	약품상자	대, 소	각1		2015. 9	구입

원주환경운동연합 정관

---- 1993. 9. 21	제 정
---- 1994. 4. 23	1차개정
---- 1995. 3. 30	2차개정
---- 1996. 3. 21	3차개정
---- 1998. 2. 19	4차개정
---- 2001. 1. 20	5차개정
---- 2002. 2. 2	6차개정
---- 2003. 1. 28	7차개정
---- 2005. 1. 27	8차개정
---- 2006. 2. 8	9차개정
---- 2007. 2. 13	10차개정
---- 2008. 2. 11	11차개정
---- 2009. 2. 13	12차개정
---- 2010. 1. 28	13차개정
---- 2013. 2. 5	14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06.2.8 개정)

이 모임은 원주환경운동연합(약칭 원주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WONJU(약칭 KFEM WONJU)이라 한다.

제2조 (목적, 07.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생명·평화·참여를 중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상, 06.2.8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환경연합의 원주지역 조직이다.

제4조 (소재)

원주환경연합의 사무실은 원주에 둔다.

제5조 (사업, 07.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활동
6)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 (정당 및 정치활동 배제, 09.02.13 개정, 13.02.05 개정)

공동대표, 사무국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상실, 06.2.8 개정, 13.02.05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으로 구분한다.
3) 회원은 연 3회 미만 회비 납부 시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4) 후원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고 활동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8조 (가입, 09.02.13 개정, 13.02.05 개정)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원주환경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1회 회비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후원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정하는 가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05.1.27, 06.2.8 개정, 13.02.05 개정)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원주환경연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원주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3) 원주환경연합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단 후원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 (상벌, 09.02.13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2) 원주환경연합의 명예를 심해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1조 (총회, 08.02.11, 09.2.13 개정)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 성원은 제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 및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09.02.13 개정)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원 1/10 이상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06.2.8, 09.02.13 개정)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4) 결원 운영위원 및 감사의 승인
5) 상근활동가의 임면의 승인
6) 감사,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7) 원주환경연합의 해산의결. 단 이 경우 참석회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8)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14조 (공동대표, 09.02.13 신설)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공동대표간의 소통과 협의를 위하여 공동대표단 회의를 둘 수 있다.
4) 공동대표 중 1인은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5) 상근활동가의 임면
6) 공동대표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후보 선정의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감사, 09.02.13 신설)

1) 원주환경연합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이다.

2) 보선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운영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3) 감사는 조직운영, 예·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09.02.13 신설, 13.02.05 개정)

운영위원회는 원주환경연합 의결 및 집행기구로 구성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3) 운영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2명 이상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운영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원소모임은 1명 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10.01.28 개정)

제17조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09.02.13 신설)

1) 회원가입·탈퇴의 승인

2) 추천위원회의 구성

3) 결원 운영위원, 감사의 선임

4) 상근활동가의 추천

5) 예산, 결산, 활동의 심의 및 집행

6) 회원소모임의 결성승인 및 해산의 결정

7) 총회 상정의안 심의

제18조 (추천위원회, 09.02.13 신설)

1)원주환경연합은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을 위해 10인 이내의 추천위원회를 총회 6월 전에 구성하여 총회까지 운영되며, 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2)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총회준비위원회가 되며 세부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고문 및 지도위원, 07.2.13, 08.02.11, 09.2.13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은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원주환경연합은 연 2회 이상 고문, 지도위원회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전문위원회, 07.2.13, 08.02.11, 09.2.13 개정)

1) 환경운동 및 조직발전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정책 연구결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상근활동가, 09.02.13 신설, 13.02.05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회원간 소통과 본회의 운영 및 사업집행의 지원을 위하여 상근 활동가를 둔다.

1)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2) 3년 이상의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활동가에 대한 처우와 임무, 직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소모임, 08.02.11, 09.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회원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의 참여를 위해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1) 소모임은 원주환경연합 회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운영위원회에 승인된 소모임은 1인 이상의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23조 (의사결정, 06.2.8 개정)

당 회계연도에 월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24조 (사업단의 설치, 13.02.05 신설)

원주환경운동연합의 목적을 위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단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4조 (회계년도)

원주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운영, 09.0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운영위원, 전문위원, 지도위원의 특별회비,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개정시행, 08.2.11 개정)

1) 이 정관은 1994년 4월 23일 제1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1995년 3월 30일 제2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1996년 3월 21일 제3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1998년 2월 19일 제5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01년 1월 20일 제8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02년 2월 2일 제9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03년 1월 28일 제10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05년 1월 27일 제12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2006년 2월 8일 제13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0) 이 정관은 2007년 2월 13일 제14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1) 이 정관은 2008년 2월 11일 제15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2) 이 정관은 2009년 2월 13일 제16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3) 이 정관은 2010년 1월 28일 제17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4) 이 정관은 2013년 2월 5일 제20차 정치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운영 세칙

--- 2006. 02. 08 제　　정
--- 2007. 02. 13 1차 개정
--- 2010. 10. 13 2차 개정
--- 2013. 02. 05 3차 개정

ㅁ 목　적

원주환경운동연합(이하 원주환경연합)의 운영의 효율화와 정관의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운영세칙(이하 세칙)을 둔다.

1. 회원 및 회비의 구분

① 정회원의 구분(2013. 02. 05 3차 개정)

ㄱ. 회원은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ㄴ. 일반회원 이외에는 고문, 지도위원,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ㄷ. 일반회원은 가족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청소년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ㄱ, ㄴ, ㄷ을 제외한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원가입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한다.

② 회비의 구분

ㄱ. 원주환경연합 회비는 통상적으로 월 10,000원으로 규정하며 회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10,000원 이하로 회비의 조정은 상근활동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ㄴ. 가족회원의 회비는 월 15,000원 이상이다.

ㄷ. 청소년회원의 회비는 월 3,000원 이상이다.

ㄹ. 단체회원의 회비는 월 30,000원 이상이다.

ㅁ. 평생회원은 회비는 1,000,000원 이상이다.

ㅂ. 자료회원의 회비는 월 3,000원 이상이다.

2. 공동대표의 추천 및 선출에 대한 규정

① 공동대표의 자격

ㄱ. 공동대표는 3년 이상의 회원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ㄴ. 회원은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ㄷ.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회원

② 공동대표의 추천 공지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공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총회개최 전년도 10월에 공동대표 후보 추천에 대한 공지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ㄴ. 후보 추천기간은 2주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대표 후보의 추천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자체 논의를 통하여 공동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ㄴ. 회원의 공동대표 후보 추천은 공지된 기간안에 연명된 추천자 명단과 추천 의견서를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④ 공동대표 후보의 논의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자체후보 및 회원이 추천한 후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한 후 총회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⑤ 공동대표의 선출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공동대표 후보는 총회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동의절차 후 선임한다.

⑥ 공동대표 후보 선임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ㄱ. 총회에서 공동대표 후보의 선임이 의결이 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이내에 비상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ㄴ.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의장후보 선정을 완료하고 비상총회를 통하여 의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대표 추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3. 상근활동가의 처우와 임무에 대한 규칙

① 상근활동가의 자격

ㄱ.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ㄴ. 실무자의 근무기간은 원주환경연합에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총합하여 규정한다.

② 상근활동가의 직위(2013. 02. 05, 제정)

ㄱ. 상근활동가의 직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간사, 부장, 국장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ㄴ. 상근활동가의 직위 규정은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규정을 대체로 따른다.

③ 상근활동가의 급여

ㄱ. 원주환경연합에 발령이 나면 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ㄴ. 4대보험은 상근활동가가 부담하지 않는다.

ㄷ. 퇴직금은 사례의 형태로 형태로 지급하며, 월 5만원씩 단체에서 적립한다.

- 1년이상 3년이하는 마지막 급여의 100%를,
- 3년이상 5년이하는 마지막 급여의 200%를,
- 5년이상은 300%를 지급한다.

ㄹ. 상근활동가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1년에 1회 조정이 가능하다.

4. 소모임의 운영

① 소모임의 구성

ㄱ. 소모임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이 필요 또는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결성 및 해산을 할 수 있다.

ㄴ. 상근활동가는 소모임이 결성 및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소모임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소청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ㄷ. 운영위원회가 1년 이상 활동한 소모임의 활동을 심의결정하면 소모임의 회원 중 운영위원의 자격이 되는 1인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ㄹ. 소모임 구성의 최소인원은 5명이다.

② 소모임의 해산

ㄱ. 소모임의 활동이 없거나 단체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경우 상근활동가는 소모임의 해산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ㄴ. 소모임의 해산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소모임 구성원에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및 설명의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